

9. 영인면

가. 영인면 마을 1 (구성리)

1) 조사일정

1992. 1. 13., 방지선 기록.

오후 4시에 백석포 노인회관에서 곧장 구성 3리 노인회관을 찾아가니 많은 노인이 있었는데 하던 일을 멈추고 조사자들을 반겨주었다. 조사자가 찾아온 취지를 설명하자 처음엔 역사에 근거된 이야기를 해야만 된다고 하며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꺼렸다. 그러나 조금 후에 정지용 씨가 <개구리 형상의 지가설>과 <울곡 선생>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이금봉 씨는 <세상은 자유>를, 이봉주 씨는 <현몽 덕에 장가 든 효자>를, 듣고 있던 박원경 씨가 <남궁씨에 얽힌 이야기>를 하였다.

저녁때가 되어서인지 노인들이 얼마 없고 해서 이금봉 씨의 <호박에서 태어난 게으른 총각> 이야기를 끝으로 17시 50분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개관

【영인면 마을 1】

337-820 충청남도 아산군 영인면 구성리 3구

1992. 1. 13. 권민정 조사.

영인면 구성리는 늑안말이라는 자연 부락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은 거의가 노인들이며 농사를 짓고 있다. 교육 시설이나 행정기관은 전혀 없어 아산리로 나가야 한다. 교회가 둘이 있고, 주민들은 기독교를 많이 믿는다.

마을에 공장이 있어서 길은 모두 포장되어 깨끗했다.

3) 구연자

【구성리 구연자 1】

영인면 구성 3리, 정지용(鄭智容), 남, 72.

1992. 1. 13, 한혜인 조사.

이곳에서는 피난 후 40여 년 간 살고 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였으나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뿔테 안경을 쓴 얼굴은 희고, 손은 거친 기가 보이지 않았다. 얼굴에 주름이 없어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다.

이곳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처음 노인회장을 찾았으나 어디서 온 누구냐고 신중하게 물어본 후에 자신이 노인회장임을 밝혔다. 조사자가 구연을 부탁하자 확실하게 알지 못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좀처럼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다. 조사자가 백석포리에서 있었던 일과 채록한 이야기를 하자, 그때서야 구연을 시작하였다. 구연을 하다가 막히면 얼굴을 붉히고는 이래서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서둘러 결론으로 뺐었다. 이야기의 끝은 모두 교훈적인 말로 끝을 맺었다.

【구성리 구연자 2】

영인면 구성 3리, 이봉주(李奉周), 남, 71.

1992. 1. 13, 한혜인 조사.

노인회장인 정지용 씨 옆에서 정지용 씨에게 이야기 해 보라면서 재촉하였던 분이다. 정지용 씨가 구연을 할 때에도 뭔가 이야기를 할 듯한 분위기를 풍겼으나 막상 정지용 씨가 구연을 끝내고 다시 부탁하자 정지용 씨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것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하지 않으려고 했다. 조사자들이 계속 부탁하자 <현몽 덕에 장가 든 효자>의 구연을 시작하였다.

이곳에서는 30년 정도 살았다고 한다.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으나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정지용 씨와는 거의 같은 나이인데도 훨씬 늙어 보였다. 성격은 밝은 듯하였으나 막상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자 수줍어하였다. 구연을 시작하면서는 목소리가 떨리기까지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잘 이어지지 않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종잡을 수 없이 되어 버리기도 하였다. 잊어버린 부분은 자신이 지어내어 구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구성리 구연자 3】

영인면 구성 3리, 이금봉(李金鳳), 남, 73.

1992. 1. 13, 한혜인 조사.

이봉주 씨가 구연을 끝내자 노인회관의 노인들이 저녁때가 되어서 하나 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하였다. 별로 신통한 자료를 얻지 못해서 조사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구석에 앉아서 계속해서 듣고만 있다가 조사자들을 불러 천천히 구연을 시작하였다.

이곳에서는 40 년째 살고 있고 자식들은 모두 외지에 나가서 살고 여기서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한다.

키가 작고 마른 체격으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있으면 다른 노인의 반쯤밖에 돼 보이지 않는다. 목소리는 작지 않았으나 말이 빨라서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한번 구연을 시작하자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다른 노인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지루해져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서 자리를 뜨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연을 계속했다. 밖이 어둑어둑해져서 노인회관에 불을 켜야 할 시간이 되어서야 구연을 멈추면서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배가 고파서 가야겠다고 하며 일어섰다.

구연해 준 이야기로는 <세상은 자유>와 <호박에서 태어난 게으른 총각> 이야기가 있다.

4) 설화 자료

【구성리 설화 1】

영인면 구성리 3구 노인회관, 1992. 1. 13. 한혜인, 방지선, 권민정 조사.

정지용(남, 72)

개구리 형상의 지가설, 율곡선생.

구성1. 앞

한 이가¹⁾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디 가서 공부를 하나면 절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뭘 배웠냐 하면 지가설²⁾. 지가설이라는 건 이제, 산소자리도 보고, 집터도 보고, 인제 이러한 그 공부를 했다 이거여. 그래 십 년을 공부를 다 하구서 내려 온 거야. 집으로. 아,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배운 게 산소자리 보는 거, 집터 보는 거, 이런 거만 이제 배운 거야. 이제, 그러니깐 세상 구경을 하겠다구 돌아댁기는 거지, 이제. 그래 돌아 댁기다가 아어느, 어느 참 큰 사람 집이 있어서 거기를 쑥 들어갔다 이거여. 들어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룻밤 자고서 나왔다 이거여. 나와서 또 다른 데로 가다가, 참 산골로 뚝 들어가는데 오막살이잖아. 쪼그만 게 하나, 둘인데 참 자기가 어렵거든. 그래도 어디에 집이 없고 그래서, 다른 데서 자기는 어렵구 자꾸 졸랐다 이거여. 그래 졸르니까는 “그래, 그럼 하룻밤 쉬어가라.”구. 그래 그 집에 들어가 또 하룻밤을 자고, 참 그 사람이, 참 그 대접을 받고서는, 그 대접을 갚을 도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는 참 “가난하고 어렵고 그렇게 산다.”고 그래. “내 산소 자리를 하나 봐줄게. 거기다가 쓸 수가 있느냐?” 그래 “내가 업어다가도 산소자리 쓰겠다.”구. 자기 할아버지 산소를 옮기는 거지 인제. 파서 인제, 파가지고서 그루터기로 왔다 이거여. 게다가 인제 산소자리를 썼거든. 그래 쓰구서 간 뒤에 참 그 사람이 참 잘 돼서 그랬는데, 참 몇 해 있다가 그 사람 집에 왔다 그거여. 아 그런데 그 사람이 간 곳이 없어. 그래서 참 이상도 시럽다³⁾ 하구서 이 사람이 그 너머 가서 물어보니까는 “그 사람 밤에 떠났다.”고 말이지, 그래 “뭐, 떠났다고?” 할 수 없거든. 찾을 도리도 없고. 그래 이럭저럭 댁기다가 그 사람을 만났다 이거여. 그래 그 사람을 보니까는 “당신이 산소를 봐 줘서 참 괜찮았었는데 그 뒤 잘못돼서 우리 아버지가 떠났다.”구. 그 떠나보내니 도로 이렇게 어렵게 고생을 한다구 그래. “그럼 산소 자릴 내가 다시 하나 봐 줄게. 이건 아주 명당 자린데 산소자리 하나 봐 줄 테니 가자.”구. 그래 가서 보니까 자리가 참 좋더라 이 말여. 그래 여기다 쓰면 아주 잘 될 테니 그래 거기다 썼어. 그래 거기다 또 썼는데, 몇 해 있다가 와서 보니까 그 사람 금새 부자가 됐다던데 갑작스럽게 죽었다 이 말여. 아, 죽었다고 그러니까 참 이상스럽거든. 지가 산소 자릴 틀림없이 명당 자릴 잡아줬는데. 그래 그 자릴 가서 보니 금시발복⁴⁾ 자리야. 개구리가 물루 들어가는 형상이라 말여. 그래 개구리가 물루 들어가니 좋지 않아? 그래 금방 탄록⁵⁾을 했어. 내가 틀림없이 산소 자릴 이렇게 잘 줬는데 이 사람이 아주 이거 이상스런 일이라구. 이거 내가 십 년 동안 지가설을 공부했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구나 하구선. 쇠⁶⁾ 쇠라는 게 요런 거, 인제 동서남북 가리는 침이 있거든. 그래 그걸 끄내서 다 팽개쳤어. 다 때려부셨어. 이제 다 소용없다. 그리구 앉아서, 뚝 앉았는데 아이들이 그 물에 미역을 감다가 말이지 “황새 몸에 해졌다. 풀 베러가자.” 그 런다 이거여. 아 개구리 허리에다 황새가 거기서 눕적거리니. 아 황새가 그 개구리를 잡아 먹는다 이거여. 아 그러구선 그 자손들이 죽었다 이거여. 그래 참 이상스럽다 하고서 그날

저녁에 가서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하면 그 사람이 살인을 하고 쫓기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거여. 그래 벌을 받아서 그렇다.

율곡 선생이 그 전에 팔년병화⁷⁾, 임진왜란이라고 하지. 그 임진왜란이 생겼는데 그 분이 바로 파주 배내⁸⁾라 불리는 주막이 있어. 그 배내라는 데 가면 율곡 선생님이 사시던 동네라는 데 그래 율곡 선생님이 배내라는 주막에 떡 와서 있는데, 거 참 빈집이 하나 있겠어, 빈 집. 그래 그 빈집에 들어보니 어느 내외 사람 소리가 나거든. 그래 가만히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까는 어린애를 막 날려구, 났다 이거여. 아 그지가⁹⁾ 빈집이서 어린애 난 걸 보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미역 한 짐에 쌀 두 되박을 어디 가서 밥이나 해 드시라고 문을 열고서 드밀었다 이거여. 아 드밀고서 썩 나오니까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고 아무 소리가 없거든. 그래 그 밖으로 나가다가 도로 들어와서 문을 떡 열었다 이거여. 그래 그 그지가 하는 말이 “고맙긴 고마운데 인사 안 했다.”고 도로 들어와 문을 열어보면 그지거던. 아 그런 걸 보니 그지일 망정 보통사람은 아니다” 이거여. 그래 들어갔어. 들어가서 참 잘못 났다는 얘기를 하고, 팔년 난리가 나니까. 그 그지가 하는 말이 “그래, 저희 식구는 이번에 다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먹는 거 보니까 살리겠어. “아, 그래, 걱정말라.” 구.

【구성리 설화 2】

영인면 구성리 3구 노인회관, 1992. 1. 13. 한혜인, 방지선, 권민정 조사.

이봉주(남, 71)

현몽 덕에 장가 든 효자

구성1. 앞

그 전에 한 사람이 사는데 참 두 내워서¹⁰⁾ 살다가 참 마누라는 죽구, 부모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두 식구 살다가 죽구, 혼자 부모 내위하고 살다가 인제 부모 내위 썩 돌아가고 혼자서 사는 거야. 이제 삼 십 총각이다 이거여. 삼 십 총각으로서 할 수 없어. 그 전엔 떡거리 머리 이렇게 따구 이러키 장가도 못 가구 살다가 거기서 “예라 내가 이력허구 혼자 살면 뭐하냐.”구 길을 떠나서 간 거야. 그런디 효자 노릇을 허구 살았다 그거여. 부모 장사 다 지내구 떠나가는 거야. 아 며칠 이렇게 떠나가는 거야. 여기서 가면 전라도 지방을 갔던지 어디를 갔던지 며칠을 간 거야. 가는데, 정자나무가 섰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현몽을, 꿈에 현몽을 본 거야. ‘네가 아무 때¹¹⁾ 동네 가면 시방 거기는 가물어서, 시방 농사를 못 저먹고 시방 난리니, 니가 거기 가서 농사를 지어먹게끔 거 가서 인제 물을 대 줘라.’ 그러니까 꿈에 이상스럽다하고 거길 찾아가는 겨. 근데 거기 가니까 정말 물 좀 달래니까 “물한 그릇이 어디 있냐?”고 말이지. “우리 밥 해 먹을 물도 없다.”구 말야. “아, 그러냐?”구. 이 떡 창문 바깥에 큰 느티나무가 하나, 정자나무가 섰다 이거여. 꿈 해몽에 그것을 베어서 넘기면은 속에, 뿌리채 해서 쓰러뜨려 넘기면은 물이 나온다 이렇게 했어. 그래 거기 가서 “동네분들, 그러면 내가 …..” 의복은 남루하지 이 사람이 어려운 생활에 삼 십 총각이니 머리는 더부룩한 사람이. 그래 “내가 …..” 이런 얘길 하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해서 물을 먹게 해 주냐?” 그거야. “저 미친놈 보라.”구 “동네 사람들이 미친 놈이던지¹²⁾ 어찌 났던지,

물만 나와서 식수 잡숫구 농사 지어먹으면 될 거 아니냐?” “아, 그래 어떡하면 되냐?” “저 느티나무만, 사람 한 백 명 구해달라.” 구 말야. “그래서 그거를 파서 쓰러뜨려 넘기면 물이 난다.” 구. “이 동네에서 멀구 살 수 있다.” 그런 얘길 하는 거야. 그러니깐 어떤 노인네덜은 “아, 그, 사람 일 알 수 있어? 한 번 해 보는 대로 해보지 뭐.” “아, 미친놈의 소릴 뭘 들어. 아 저거 미친놈이지. 아, 저 나물¹³⁾ 쓰러뜨려 넘기면 거기 물이 나와?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공박을 주는 거야. 그래도 “정 싫으면 관두라.”고 말이지, “헐 수 없다.”고 갈라 구러니까 “가지 말라.”고 말이지. “사람의 일을 알 수 있느냐. 한 번 해 보자.” 노인이, 그 동네에서 아 노인이 그러시는데 그거 어길 수 없어서 마지못해 사람을 모아서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붙들어서 매서 수십 갈래를 해 가지구 동네 사람이 제¹⁴⁾ 매달리구. 도끼루다 간 뿌리로 뺨어 나간 걸 자르구선 파는 거여. 파니, 그냥 잡아 당겨 쓰러뜨려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아 그냥 평하니 물이 솟아 올라오는 거여. 아 그래서 거기다 식수물이 없던 데서 식수물 먹지, 농사덜 짓지 하니까, 아 “가지 말라.” 구 “이 동네서 사시라.” 구 말이지. 대우가 그냥 떡 받들 듯 하잖아. 아 “아니, 나 볼 일 있으니까 가야한다.” 구 떠나는 거야. 노자를 몇 푼 후히 줘서 보낸 거야. “아이, 노자돈 싫다”. 구 말이지. 아 그래도 자꾸 주는 걸. 그래 노자돈 이러키 받아가지구 이름, 성명, 주소 인제 아무개 동네 적어 가지구 그 사람은 갔어. 가다가는 또 한 번 하루 저녁을 자는데 현몽을 하는 거야. ‘어디어디 가면 시방 사람이 죽을라구 그라구 있다. 사람이 죽을라고 그라는데 그 사람을 가서 살려줘라.’ 효자로 자라고 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여. 다른 게 아니구 “그러냐?” 구. 동네와 이름을 물어서 찾아가는 거지. 그 현몽한 데로. 그 찾아가니깐 참 대가집인데 아 사람이 법적법적하고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어두워졌네. 어두니까 장인덜¹⁵⁾, 굿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 물려와서 사람이 죽어 가니까 고칠라구, 무당이 와서 굿도 하고 가, 장인이 와서 경도 읽고 가고, 이력하고 가는데, 방이 크나큰 집에 한 사람¹⁶⁾, 건너방, 안방, 그 수많은 사람덜이 덜 썩덜썩 하는 거야. 근데 그 집에 애가 딸이야. 한 이 십여 살 먹은 딸이 다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엘 살릴려고 굿도 하고, 경도 하고¹⁷⁾ 하는데, 거기 가서 밥 좀 달래니까 “아, 시방 이 난리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밥을 달래니?” 그래도 밥을 줬어. 그래 밥을 먹고 “무슨 곡절로 이러느냐?” 구. 아 “우리 딸이 병이 들어 낫차를¹⁸⁾ 앓는다.” 구 그러니까 “그럼 지가 한 번 고쳐 보겠다.” 구. 아, 어떤 사람이 보니 아무 꺼병한 사람이 그런 소릴 하거든. 아, “저런 사람이 뭘 고치냐?”고, “에이 밥이나 한 술 얻어 먹었으면 가라.” 구. 아 이러면서 공박을 주는 거여. 아 그런데 노인 양반이 “사람일을 알 수 있나?”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 하는대로만 하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저 허는 대로 허겠습니다.” 아이 대장간에 풀무질하는 거 그게 있잖아. “그걸 어디 가서 구해 오십쇼.” 그래 구해다 놓고. 대장질하는 집게 있잖어? 집게. “그런 집게도 한 이십 개 준비해 오쇼. 그리고 거기 기름 몇 동이 부워 주십쇼.” 아, 그래. 부갯집인데 뭐는 못 구해와, 사람만 살리면. “장작도 좀 주십쇼.” 하니 “장작은 얼마든지 있다.” 고 말이지. 큰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쫄이는 거여, 기름을. 이 대장간에 젓갈을 갖다가 풀무질을 해서 시뻘겅게 달구는 거야. 그러구 사람 한 이십 명 둘러 서 있는데. 그러구 아 지붕마루에 올라가서 지붕마루를 뜯으니까, 대들보 있는 데 큰 지네가 걸쳐 있다 이거여. 그걸 갖다가 그냥 잡아다가, “그게 조화다.” 그거야. 그래 그걸 찍어다가 펄펄 끓는 기름 솥에 넣었어. 그리고 “그 삭시는 내다보지도 말라.” 구 하고. 아, 처년데, 저는 총각이구. 아 그 들어가서 보니까 죽는 것에서 피해났다 이거지. 아 그래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삭시가 “날 두고 어디 가냐?” 말이지. “당신 가면 나 죽는다.” 아, “왜 날 살려놓고 그냥

가냐? 내가 그 은공을 뭘로 갚냐?” 그 말여. 그러니 나 혼자 사자 그거지. 그래 부모네도 “어딜 가느냐?”고 그러니 아 그래도 “간다.”구 그러니까는 저희 땅을 한 삼 분지 이쯤 베어 딱 주는 거야. 그리고 삭시 태워서 가마 태우고 집으로 가는 거야. 오막살이 집인데 크지도 아닌 놈의 집으로 가니까는 벌써 그 집이가 농사가 잘 돼서 추수 받아다가 곡창에다가 쌓아 놔더라. 그 사람이 그 농사 저먹는 데서. 아, 그래서 그 돈 받아 가지구서 자서 토지 사고. 그거해서 양복가지두 짓고. 두 내워서 잘 살다가 어저께 죽었다나, 오늘인가? 장사에 갔드랬지. 내 그때 갔었어.

【구성리 설화 3】

영인면 구성리 3구 노인회관, 1992. 1. 13. 한혜인, 방지선, 권민정 조사.

이금봉(남, 73)

세상은 자유, 호박에서 태어난 게으른 총각

구성1 앞, 뒤

옛날, 한 사람이 부자로 잘 살았어. 부자로 잘 사는데, 아,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하고만 뒀어.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 둘을 뒀는데, 그래 옛날에는 대학도 없고 그렇게 이제 한문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거야. 독삼경을¹⁹⁾ 독삼장을 놓고 딱 공부를 하는데, 참 판디를²⁰⁾ 보니까 측은한 애가 하나 있어. 그래 아버지보고 “나 혼자만 공부를 하면 이러키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아무디 가서 아무개를 데려다가 공부를 하면 우리가 더 잘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얘길 했어. 그래 자기 아버지가 귀한 아들인게 그럼 데려다가 둘이 공부를 하는데, 둘이 공부를 하니깐 잘 하거든. 근디 인저 애는 자기 누나가 하나 있으니까 자기 매형을 삼고 싶어. 그래 인저 자기 아버지보고, 공부를 얼마나 했던지 어딜 가던 선비라는 소릴 들을 만한 공부를 했어. 이러키 공부를 했는데, 아 그래 인저 자기 아버지보고 “판 사람을 매형을 삼느니 우리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을 매형 삼는 게 어떻겠소?” 하니깐 자기 아버지가 꺾쩍 뛰고 “아무 데나 얻어먹던 놈을 데려다가 이만치 공부를 시켰는데 그런 놈을 매형 삼는 건 안 된다.”구. “당장 내쫓으라.”구. 자기 아버지 어명이거든.²¹⁾ 그래 할 수 없이, 옛날에는 어명하면 그대로 시행했지. ‘왜 그랬어요?’ 소리를 못 했어. 아, 그래 이 사람하고 헤어지게 됐네. 이저 그 집에서 헤어지게 됐는데 그러게 아버지 몰래 삼백 냥을 훔쳐. “이걸 가지구서 어딜 가설랑 잘 살라.”구. 그랑께 이 사람은 그 집에서 정을 들구 잘 지냈으께 정 떠나기가 서운하거든. 어떡해, 어명인 걸. 돈 삼백 냥을 들구 떠났다 말여. 그랑께 옛날에는 공부만 하고 다른 일을 못 하거든. 살림도 모르고, 일 할 줄도 모르고. 옛날에는. 지금 같으면 공장이나 들어가면 되지만, 없으니까.²²⁾ 아, 그래서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누이는 훌륭한 남자 얻어서 출가를 하고 하는데, 딱 하니 살다살다보니 살림이 줄거든. 그런데 들어보니 자기 집에서 살다 간 이기 중국에 가서 큰 부자가 됐다구래.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니까, 찾아가서, 인저 찾아가는 동네가 저기쯤 있는데, 여기 보니 소동이²³⁾ 하나 있어. 그 소동에게 “아무개 집으로 갈라면 어디로 가느냐?”고 길을 물었어. 그러니 아 그 젊으신 네가, 어린 소동네가 반말을 한다고 뽀나 자빠뜨려가 꾸션, 몰래 자빠뜨려서 그렇게 깨끗한 의복을 황토흙 칠을 하고 모든 참 구박을 당했어. 아 당했어도 거기까지 왔으께 그 양반네 집을 찾아가는 거여. 그 차츰차츰 물어서 찾아간게,

의복이 흙투성이거든. 그래 “왜 그러냐?”고 하니께 자기가 실수를 해서 자빠져서 그렇다고 그라구서는 저녁을 잘 차려다 먹고서는 전의 그 같이 공부를 허던, 주고받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손자가 왔어. 자기 손자보고 “이 어른, 할아버지께 절을 하라.”구라구서²⁴⁾ 자기 궁글리던²⁵⁾ 그 사람이여. 그랑께 절을 앓고 획 나가거든. 그러니 패썹한께 자기 아들을 불러다가 절을 하라구. 그래 절을 했어. 그래 “네 아들은 왜 절을 안 하냐?” 그렇게 아들이 방에 싸게²⁶⁾ 들어가서 “절을 하라.”구 하니 절을 안하, 자기가 궁글리 사람인데 절을 하겠어? 아 안 항께 자기 아들 보고서 “왜 절을 안 하냐?”고 하니께 “세상은 자유내요.” 자기 아들이 그라거든. 지금 자유라고 하잖아? 그래 세상은 자유라구. 세상은 자유여. 그래 인저 며칠을 묵어서 후히 대접을 하고 후히 줘서 보냈어. 그라구서 자기네 집에 있는 소도 잡고, 떡도 해다가 동네 전부 잔치를 하는 겨. 있는 재산을 다 쓰는 겨. 그리고 동네 사람에게 돈 받을 문서를 전부 성냥불로 사르는 겨. “세상은 자유랑께 나도 자유다.” 그러키 인저 전부 사르고서는 자기 땅 문서를 없는 사람 다 나눠 주는 겨. 자기가 두 내위 먹을, 살 것만 싸들고서는 강원도 절로 들어갔어.

예전에 (조사자: 예.), 그 저 다 잊어버렸어, 하두 오래서. 이게 제대루 돼야지, 한 사람이 사는데, 참 그 내외 이렇게 살다가 자식이 없구. 그래 할 수 없어, 이거 옛날 이야기야. (조사자: 예 예.) 이거 거 전부 거짓부렁이나 한 가지야. 나두 들으면서 그 전에 그거 거짓부렁이려니 생각했지. (녹은 상태 불량) 그래, 사는데 아 저 중간에 (녹은 상태 불량) 있어가지구 (녹음 상태 불량) 사람은 안 오구 호박을 하나, (조사자: 호박이요?) 호박. (조사자: 예.) 그건 호박을 낳았다는 게 아니구 비비적대서²⁷⁾, 인저 옛날 옛날 그렇게 했겠지. (조사자: 예.) 그런데 이걸 국을 끓여 먹잔 말두 못하구, 사람에서 뱃속에서 나왔으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렁가에가 떡 갖다 없어 났네, (조사자: 아, 시렁가에다가요?) 응, 시렁에다가 없어 났는데 그, 거그, 그 사람의 똥이라서 때때마다 밥을 한 상씩 떠다 놓는 거야.(조사자: 예, 거기 시렁에다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밥이 없어지는 거여.(조사자: 예.) 그래 때가 돼 가지구 그래 즈이 어머니가 그 난, 난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니까는 참, 아랫목에 꽃꽂한 총각이 하나 떡 나타나 있다구.(조사자: 예.) 그런데 문을 열구 들어가니까는, “니가 누구냐?” 하니까는, “어머니!”하구, “어머니 오시냐?”구 인사를 올려. “니가 누군데 날 어머니라구 하느냐?” 하니까는, “지가, 옷방 시렁가에 가 보시오. 호박에서 나왔시다.”(조사자: 아.) 그러거든. 가 보니까 이 저 구멍이 흰허게 뚫려지구 뭐시 하니깐, 나왔으니까는, 거기서 나왔으려니 그럴 꺼 아냐? (조사자: 예.) 그래서 아들이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뭐라 지었냐 하무는 저 아주, 아주, 아주, 아주, 한테²⁸⁾에서 나왔다구 아주범거지라구 인저 이름을 지은 거야. (조사자: 예.) 아, 그래 그럭저럭 사는데, 아 이눔이 일인 못 허구 옷목에서 밥 먹구 아랫목에 똥 싸는 게 일이여.(조사자: 예.) 그렇게 못난이 짓을 했다구. 참 이거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즈 어머니는 그 전에 하두 어려워서 인저 그 아래 부잣집에, 대갓집에 가서, 정말 식모살이, 지금으로 말하면 식모야. (조사자: 예.) 그 전엔 그 집 하인인데 하인. (조사자: 예.) 이 영감하구 둘이 그 아이하구 한테²⁹⁾ 모대³⁰⁾ 사는 거여. 그래 사는데, 그 담에 인제 나이가 이 십 여살 거진 먹여가지구, 밥만 먹구 똥만 싸는 게 일이었다 그거여. (조사자: 예.) 그러니까는 이 아주 멍탱구리지³¹⁾, 멍탱이. 그니까 즈이 어머니가 “참 너는 어테케 된 새끼가 그저 밤낮, 그저 밥 먹구서 방바닥에 똥만 싸는 게 일이냐?”구 말이지, “남은 소를 맥인다, 똥 헨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 내려온다 이래는데, 그러냐?”구, “그럼, 그 아랫집 대

잣집인데, 대갓집에 가서 거 짚을 좀 몇 단 은어다 주쇼.” “뭇하게?” (조사자: 예.) 그러니까
 으쓱하냐구³²⁾ 그 전에, 옛날에는 이 태기루다가³³⁾ 태쳤거든 (조사자: 예.) 뱃단을 묶어 가
 지구, 이 만큼씩 묶어 가지구, 이렇게 올라 내려가지구 구렁을 이렇게 했어. 구렁을 태렸어
³⁴⁾ 떨어져, 했다구. 뭐 그게 이렇게 가래 났다가, 거 태까치같은 걸루다가 해 자기구 채쳐
 가지구 멍석을 피우던지³⁵⁾ 이렇게 마당에다가 이렇게 툭툭툭툭 털었거든(조사자: 예.) 털어
 서 이렇게 해 먹었는데, 일이 꺾어서두 그건 다 했다구³⁶⁾ 그렇게, 애기만 그거 헛거지. 그랑
 게 허니까는 그걸 짚으로 파니메니 여다 쫓다 이거여. 그러니까 그 베가 누렁지. 그거 베가
 누렁지. 털지 않은 거니까 아 이 높이 그걸 터는데 그걸 베를 까가지구서는 쌀을 여며쥐구
³⁷⁾ 있으니게 손으루다 여며쥐게 시리 허다시피 맨들었다, 여며쥐게.(조사자: 예.) 그렇게 쌀
 깐 것이 그렇게 났다는 그거지(조사자: 예.) 이렇게 손톱으루다 까가지구 이렇게. 그거를 땃
 되를 맨들었어, 대 여석 되를(조사자: 네.) 그걸 맨들어 가지구서 거 그러는데 하루는 그 자
 꾸 즈 어머니가 메라구³⁸⁾ 그러니까는 그 산에 가서 낭구를³⁹⁾ 해러 간다구 이 높이 간대는
 거야(조사자: 예.) 아, 근데 아 낭구구 뭐구 아무 것도 안 가지구 올감이⁴⁰⁾지만 가지구 가서
 그냥 가지구 하려니 그냥 한 이 십여 세 장군이 됐지. 인제 키는 부쩍 크구. 이 산에 가서.
 근데 짜리발이, 그 전에 큰 짜리발이 큰 게 있는데, 짜리발에 가서 해 가지구서는 나뭇대기
 루다⁴¹⁾ 해서 걸머져서 미르뽕해다⁴²⁾ 가지구 앞마당에다 그냥 쾡 내려났는데, 장사야 장사
 (조사자: 예.) 멍텅이라도 그걸 보니까 그렇게 해다가 쾡 놓는데, “어머니, 이만하며는, 어머
 니 이걸 때서 밥해 잡숫구 사시겠습니까?” 그래. “아, 해먹구 말구냐.”구. 그리구는 그 대갓
 집이 가서, 잉, 대갓집이 가서, 거 대감님 쓰는 관이 있거든 관(조사자: 예.) 그냥덜 봤잖아,
 관. 저 관이라구 맨들어서 쓰구 모두 있잖아. 그래, 쓰던 관인데, 이걸 쓰구, 양반네 집에선
 이걸 쓰구 양반 행세 하구 그러거던, 뽕 옆에 쪽쪽 나구 그런 거⁴³⁾ 관을 쓰구 그 관하구 인
 제 이 입은 도포, 두루매기, 도포가 있거든. 팔, 여기 이렇게 죽하구 옆에 도포 끈 매구 이
 래는 거 있잖아. 연속극에두 나오잖아.(조사자: 예.) 그거를 은어다 달래는 거야(조사자: 예.)
 “아 요노무 새끼, 예미, 아 그 집이 가서 밥 은어다 먹구 해까지 일해다 주구 은어다 먹는
 거만 해두 뭐 황송한데, 아 감히 매맞어 죽을, 죽게 할라구 그러냐?”구 말이지. “글세, 말씀
 마세요. 비밀루, 말씀 마시구 은어다 달래.”는 거여(조사자: 예.) 차, 이거 증말 내 속으루
 난 자식인데 이거 이리저두 못하구 저리저두 못하구 참 가서, 증말 말이 안 나와서 갔다 도
 루 올 적이 있구. 도루 땃 번 그런 거여, 가서 차마 말이 안 나와서. “아, 글세, 가서 빌리시
 래니까 그러냐?”구, 그러며는 다 주실까라구. 그러거던 이 높이. 그래 안 나오는 말을 얼굴
 이 빨거지구, 참 어떨가해서 말이지, “아 대감님 보고 말씀 좀 한번 사귄까 하구 왔는데 입
 에 말이 안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아 “무슨 말인가? 허게. 아무 말이라구. 내 받아줍세.”
 “아, 역정 안 내시겠어요?” “아, 무슨 역정이야. 역정 낼게 뭐 있나. 얘기허게.” 그런 얘기를
 해. “아, 우리 아들이, 개가 대감님한테 가서 관복을, 도포를 좀 은어다 달라구 그러니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 기가 차서……, 참…….” “어떻게 의논해 보세. 갖다줍세,” 주
 거던. 그래 이걸 은어다 쫓어. 아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말을 한 필 구해 달래는 거여(조사
 자: 예.) 아, 그래 가야 그 집 말이지. 누구네 말을 구할 수 있어. 거기 가서 얘기하니까,
 “어 하는 거동이나 보세.” 말꺼정 빌려 쫓어. 말두 매니까는 말끈 끄는 하인두 가야될 거
 아냐?(조사자: 예.) 그 높하구 그 높은 친구나 한가지여. 그게 대체 니냐, 내냐하구 지내는
 높이거든.(조사자: 예.) 아, 이 높이 말을 끌고 가는 거여. 끌고가서, “너 말 끌고가냐?” “아,
 이 자식아, 네까짓 행세에 뭘 말이면 뭐해 임마. 뭘 나더러 말끈 붙들라구해, 임마.” “임마,
 이 짜식이. 임마 이 자식이 너하구 나하구 아무리 해도 원 저기 배깅에 나가서는 나보고 꼭

대감님이라구 해야한다.” 아, 이런다는 거지(조사자: 예.) 그래, 이러구 갔어. 아 이럭하구서는 정말 이 놈이 그 쌀(녹음 상태 불량) 놓은 걸 해서 응 지가 말을 갖다가 걸리구, 지가 말을 타구, 말굽두 쥘히구, 간거여. 아 그래 행차해서 거진거진 와서 날이 저물어서 인제 참, 인제 어디가서 “이리 오너라.” 대갓집에 가서 그러니까는 범거지 쓴 사람이 나와서, “아, 누굴 찾으십니까?” “나는 나무개구, 이런이런 시골서 사는데 좀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묵어 가겠다구 들어가서 여쭙라.” “예.” 하구 들어가서 대감님한테 가서 그 집 노인한테 가서, 아무개 이러저러한 도령인데 길 행차하다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지내가자구 찾는다구 여쭙라.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러거든(조사자: 예.) 그래 거 사랑방에 떡 가서 문을 열구 들어가니 대감님이 떡 판을 쓰구 점잖은 분이 앉아 있어, “어디서 오는 분이요?” “나는 아무개. 이러저러한 데서, 시골에서 어디 가는 길 행차데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신세지구 가겠노라.”구. 그래 “주안상을 채려 오너라.”구. 주안상을 채려와서 먹구 자는 거여. 자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는데 어째, 이러니까 그런데 아니냐 하구 시방 이름을 대야 하는데, 이름을 죄 잊어 버렸어. 그리고 나서 어떤 산중엔 들어가서, (녹음 상태 불량) 씨 갈라구, 즈 어떠이지, 말끈 붙들구 데리구온 아이한테 제 친구지, 씨 달래는 거야. 그 놈은 낫 놓고 기억자도 몰르잖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씨 달래서, 그 그렇게 입으로 씨, 저 불르는 대로 씨 달라. “산중엔 들어가서(녹음 상태 불량) 했으니 빨리 집으로 오시라구 여쭙습니다.”하는 전보를 했어. 인제 써서, 이제 그렇게 해 가지구 있다가, 내가 말을 타면,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영감님하구 있을 테니까는 니가 숨이 턱에 차는 거 모양하구, 헐레벌떡 헐레벌떡 뛰어 와 가지구, 그거를 대감님한테 꼭 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쓰나마나 저 씨 달래는 대로 썼으니까는, 저 한숨을 푹 내쉬거든. 그러니까 노인이 가만히 한숨을 푹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거든. “자네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숨을 기가 맥히게 쉬냐?” “네, 이것 좀 보십시오. 전보가 왔습니다.”보니까 정말 산중에 들어가서 (녹음상태 불량)를 세 개 짐을 해 실려서, 실려서 배에다 실어선 하구서 내려 왔는데, 나왔는데, 오다가 파산이 됐으니 빨리 오시라구 그런 기별이라구 해서 썼어. “아, 이러니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부자두 드러운 부자지, 그것두 (녹음 상태 불량) 배루 세 개 짐이면, 소가 땃 수십 필이나 그거여. 아주 드러운 부자지. 대감이 알기를 그렇게 속은 거여, 대감은.(조사자: 예.) “그까짓거, 대장부가 그까짓 일루다가 그렇게 기운이 없어서…….” 대감은 딸이 있거든. 딸을 인제, 사위 삼을라구 (녹음 상태 불량) “저 같은 놈이 어떻게 대감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양을 하는 거지. “아, 그렇지 않다.”구 해서 인제 장가를 들은 거여, 거기서 그렇게 해서. 그래 장가를 들어가지구 집으루 행차에 인제 바리바리해서 친구서 오는데, 꼬트머리에 그렇게 해 가지구 잘 살았다는 거여. 즈이 집에 간 거여 (조사자: 예.) 가가지구 살았는데 집으루 가니까 즈이 어머니가 그 동안 벌써 움집서 사는 거여. 움집서. 움집서 사는데, 저 가랑잎만 굵어서 덮구, 그 전엔, 옛적엔 어려워서 그렇게 살았다 이거여. 그 때 그 상황엔 헐 수 있어? 이 사람이 아주병거지, 이름이 아주 병거지여. 술만 은어먹구 살았지 다른 건 읊거던. (조사자: 예.) 그 전에 해야 제까짓게, 산중에다 술을 길어놓고 퍼먹고 사는데, 시악시가 복탱이지. 시악시가 복탱이라구. 사는데 술 먹구 사는데, 당장 먹을 게 있어, 꿀일게 있어야지. 장가만 들어가지구 갔지. 불 때고 해 먹을 게 없구. 쌀을 인제 이 시악시가 이웃집에 가서 은어다, 쌀을 꺾가지구 와서 해가지구 반찬이래야 무짬지 쪼끔, 겨우 끓여먹구 땀을 뽀뽀내구서 불을 때구 그 지랄하는데 떡 나가보니까 숯가마에 금덩이가, 금덩이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밥 먹을라구 갔다가, 밥을 채려주구서 가서 그냥 불 끄구 숯가마에 쇠스랑 같은 걸루 잡아 땡겨서 그냥 그걸 허무는 거야. 그걸 빼느라구. “아이구, 여보게,

여보게 마누라, 아 우리가 그걸루 먹구 사는 건데, 그걸 가마를 허물면 어떻게 할라구 그러느냐?”구 “잔소리 말구 어서 밥이나 자시라.”구. “나 허래는대루 하라.”구 그래 집으로 왔어. 와서 또 밥을 한 그릇 해서 맥여서, “아침에 그걸 끓여지구 서울루 올라가라.”구 올라가서 팔아오라 그거여. 서울 가자구 가서 문안에 쏙 들어가면, 어떠한 사람이 돌아다니구, 어떠한 사람이 사자구 그럴꺼다 그거지. 그래 “팔아가지구, 해가지구 오라.”구. 그래 샀어. 괜히 얘기만 길기만 하지, 별것 두 아니라구(조사자; 아니예요, 재밌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래 샀어, 가서는 떡 지고 돌아 땡기니까, 그전에는 서울이라는 데가 지방처럼 큰 데 아니구, 집도 많지 았구, 시내 가운데 도시지. 빙빙 도니까, 사구라 단장에다가⁴⁴⁾ 중절모자 쓰구 오더니 “에이, 오늘 시장에 물건 같은 거 하나 있다.”구 “사자.”구 하드래. 사자구 그러니까 얼마 가는지 알아야 대답을 할 꺼 아니냐 그거지.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니까. “아, 얼마나? 얘기 하라니까 왜 그러냐?”구 맹추같이, “아 내가 암말 안 할테니까 달라.”구, “아, 몇 천냥 줄게 팔라.”구. 이러거든. 돈을 가지구 몇 천냥 준데니까는 이게 기가 맥히지 뭐여. “아, 이 낭반이 이게 땃 천냥인데 즉어서 그래느냐?”구. “아, 그러면 한 삼 천냥 준데는 걸, 한 오 천냥 준다.”구 그러네. 아이구 그러니까 “또 땃 천 냥 더 준다.”구. “한 만 냥 준다.”구 그러네. 큰 부자지 그만하면 큰 부자지 뭐야. 그래 한 것 쫓으니까 돈을 시어서 주구서는 그냥 자기구 도망 가는 거야. “더는 못 준다.”구, “한것⁴⁵⁾ 쫓다.”구. 근데 이 저 돈을 산데미처럼 쌓아 놓구 그제 엽전 시절이라 그거지. 아, 이거 엽전이 그냥 목직 한데 그걸 가지구 갈 수 있냐 그거지. 아이구 아이구 한숨을 쉬면서 있는데, 어떤 놈이 말을 끌구 가다가, 지나 가다가 “여보, 당신 돈을 앞애다 다 깔아놓구 왜 한숨만 쉬고 있소? 거기서.” “이걸 가지구 가야 할텐데, 가지구 갈 수가 없어서 그런다.”구. “그럼 내 실어다 줄게 땃 냥 줄라구?” 아 그럼 그러라구. 아, 이, 땃 냥 주구서 신구 쌀두 줌 사구, 술도 사구, 반찬두 사구, 이제 모두해서 신구서 인제 내려왔다 그러지. 내려와 보니까 참 오막살이 저……거시기……떼루다가 둘러서 이렇게 해서 움집을 하구 사는데, 거기다 거적을 붙이구 어머니가 나와 보니까는, 저기서 누가 쌀을 신구 누가 오거든. 왔다갔다 보니까 “아, 이게 웬 쌀이냐?구. 아 좋아서 이러는 거야.” 아, 어머니 들어가시라. “구. 이 쌀하구 보니까, 시악시가 그냥, 나와서는 그냥 쌀 받아 가지구는 그냥 가마를 톱 풀어 헤치구 금새 퍼다가 부잣집에서 해먹던 식으루다 그냥 짓저서 그냥 해서, 밥을 해서, 이 사람을 맥여서 인제 노잣돈, 그 돈 주는 걸 땃 천냥 줘서 올려 보낸 거야, 서울루. 그리구 이거 돈 있구, 다 했으니까 뭐, 이거 아녀, 그거 이 돈으루다가, 그 사람 부잣집 그 전에 대감집이 있거던, (조사자: 예.) 그 집이가 거기서두 살구, 학교 땡기구, 즈 어머니가 땡길 제 참, 은어먹구 그러던 지 내던 처진데. 그 집에 가서 자.(청중: 그건 옛날 얘기여.) 그제 옛날 역사지 뭐여. (조사자: 예, 저희는 옛날 얘기 들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 뒤에도 한참 해야 돼, (일동: 웃음.), 그래 나중에 이거 땅을 대감집에서 딸 사가지구, 부자가 돼 가지구. 집 짓구 살다가 잘 살다 죽은거니꺼는, 즈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나중에는 망하구 망해서 인제 딸 덕으루 먹다가, 딸이 저 시집을 가기 때문에 (조사자: 예.) 친정이 망했다구, 부자가.

나. 영인면 마을 2 (백석포리)

1) 조사일정

1992. 1. 13., 방지선 기록.

조사 첫날인 1월 13일 오후 3시에 숙소를 출발하여 영인면 백석포리에 있는 백석포 노인회관을 찾아갔다. 노인회관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물이 깨끗했고 규모도 컸으며 지금까지 찾아간 곳 중에서 노인들이 가장 많았다.

취지를 설명하자 이야기관이 이루어졌다.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몇몇 노인들과 함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노인회장인 이인영 씨가 <망신당한 이지함>, <백석포리의 유래>, <삼한갑족>을 이야기하고 또한 <온지름 시조>를 읊어 주었다. 노인회장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김동호 씨가 <게으른 중 때문에 망한 절>, <해변에서 영 놀던 이야기>, <토정 선생 순회기>를 구연하였다. 또한 양승호 씨는 <토정선생과 독장사>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노인회관 안이 너무 시끄럽고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 않아 이 곳에서 오후 4시경에 조사를 마치고 구성 3리 노인회관으로 향했다.

2) 마을개관

【영인면 마을 2】

337-820 충청남도 아산군 영인면 백석포리

1992. 1. 13. 권민정 조사.

영인면 백석포리의 자연부락 이름은 흰돌이다. 지금은 없지만 전에 동네 어귀에 있던 크고 하얀 돌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 백석포리에는 40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주로 노인층이며 거의 모두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전에는 살기가 조금 어려웠으나 지금은 아산만의 간척지로 농토가 많아져 살기에 별 어려움이 없이 좋다고 한다. 종교는 대부분이 기독교인데 마을에 교회가 2개 있다. 교육 시설로는 백석포 초등학교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없다. 발전해 가는 시골 마을의 모습으로 현대식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 깨끗하고 부유한 인상을 준다.

3) 구연자

【백석포리 구연자 1】

영인면 백석포리, 이인연(李寅瑛), 남, 82.

1992. 1. 13, 한혜인 조사.

이 곳에서 3 대째 살고 있다. 백석포리 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배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었다고 한다. 자신은 농부라기보다는 어부라고 부르는 편이 더 어울린다고 하였다.

외모는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표정에 흐트러짐이 없이 단정하였다. 눈매가 날카로워서 무척 차가워 보였다. 그러나 이야기를 시작하자 웃는 얼굴이 되었고, 이야기 도중에 요즘 젊은이들의 나태함을 꾸짖기도 하였으나 조사자들이 하는 일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은 배운 것이 없어 아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망신당한 이지함>을 구연해 주었다. 구연 도중에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얼굴을 붉히기도 하면서 열심히 이야기해 주었다. 조사자가 민요를 하나 불러 달라고 하자, 주위의 다른 노인들이 말하기를, 평소에 술만 먹으면 입에서 설새없이 나온다고 부를 것을 재촉하였다. 한참을 사양하다가 <온지를 시조>를 읊었다. 끝내고 한 줄 한 줄 되짚으며 설명해 주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백석포리의 유래>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이곳에는 상놈들만이 산다면서 <삼한갑족>을 구연하며 씩씩한 웃음으로 끝을 맺었다.

【백석포리 구연자 2】

영인면 백석포리, 김동호(金東昊), 남, 82.

1992. 1. 13, 한혜인 조사.

화투를 치다가 노인회장인 이인영 씨가 시조를 읊자 관심을 보였다. 이인영 씨의 구연이 끝나자 조사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곳에서는 5대째 살고 있다. 아들 내외가 농사를 짓고 자신은 이 곳에 있는 교회의 일을 본다고 하였다. 교회의 부지가 없어서 다른 고장으로 옮겨가야 할 형편이었는데 자신이 땅을 내주어 이 곳에 있게 되었다고 했다. 자신이 교회의 총책임자와 같다고 자랑을 하면서 웃었다.

표정이 온화하고 밝아서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고, 얼굴의 주름도 거의 없어서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몸 매무새도 단정하였다. 말소리는 작았지만 그다지 빠르지 않아서 듣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자신은 어려서 서당에서 공부를 해 한자는 알고, 한글은 자신이 혼자서 공부했다고 했다. 자신은 이 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고장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잘 안다고 하며 <게으른 중 때문에 망한 절>을 구연하였다. 지금도 산에 가면 절에서 사용했던 사기, 기와 등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해변에서 영 놀던 이야기>도 구연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정선생 순회기>를 구연하다가 옆에 앉아 있던 양승호 씨가 끼어들자 구연을 멈추었다. 조사자들이 조사를 끝내고 나오자 따라나와 배웅을 해 주는 친절도 보여주었다.

【백석포리 구연자 3】

영인면 백석포리, 양승호(梁承浩), 남, 61.

1992. 1. 13, 한혜인 조사.

김동호 씨가 구연하는 것을 옆에서 듣다가 <토정선생 순회기>를 구연하는 도중에 그것은 자신이 더 잘 안다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인영 씨가 구연할 때는 별로 참견을 하지 않다가 김동호 씨가 구연을 시작하니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끼어들었다.

이 곳에서는 5 대째 살고 있으며 자식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마을에 관해서는 그다지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았다. 노인회관에 있던 다른 노인보다 젊은 편이었고, 외모는 마른 편으로 건강해 보였다. 목소리가 크고 발음이 명확하여 알아듣기가 좋았다.

【백석포리 설화1】

영인면 백석포리 노인회관, 1992. 1. 13. 한혜인, 방지선, 권민정 조사.

이인영(남, 84)

망신당한 이지함, 백석포의 유래, 삼한갑족.

백석포1, 앞

이지함, 그이가 토정 선생이여. 그이가 뭔가 굉장히 유명한 이거든. 그래 여기 이제, 이 강변이 애초에 쪼그만 냇갈이었어. 이렇게 크게 뚫어지덜 안 했거든. 그래 인저 막 조수가 밀려와서 강물이 터진다 이 말여. 터지는데 이지함이라는 이가 막 서둘러 금방 대충을 하니께 이 조수 드나드는 것도 그 이가 알았다는 거. 무슨 이치인지 몰라서 타고 나가보니 뭘 알어. 그래서 월부하고의⁴⁶⁾ 관계로 조수가 아마 달 따라서 들어온다는 걸 그이가 알았어. 그래서 이제 여기 해당하는 얘기여. 그래서 서두르는데 여기 계두봉이라는 데가 있어. 지금은 없지만 저 건너. (조사자: 어디요? 비두봉이요?) 계 계.(조사자: 예.) 닭 계(鷄). (조사자: 예, 닭 계자에다가요?) 계두봉(조사자: 계두봉, 예.) 그런디 요전까지 여기 아산만 개발하기 전에 거기 뽕죽하게 나와 있었어. 그런디 거기 인저 그 토정선생이 “여기들 지금 물이 들어오니까 어이덜⁴⁷⁾ 피난하라.”고 야단을 하니께 거기서 어쨌 이가⁴⁸⁾ 작대길 바쳐놓고 거기 있거덩. “인저 들어올 거 다들어 왔으니 너무 서둘지 말라.”구. 이거 이러키 보니께 엉뚱한 놈이 얘기를 하거든. 그런디 한참 보니께 없어. 그런데 물이 딸 거기까지 들어오구서 말드라 이거여. 그냥 달기머리⁴⁹⁾라고 있었어. 요 몇 해 전 이거 막기 전에는 있었어. 계두봉이라고. 그래 그런 일화가 있어.

여가 백석포라고 그랬는지 흰 백(白)자. 돌 석(石)자. 여기 여. 강변에 바위가 있었어. 꽤 큰 바위가. 여기서 어지간한 이덜은 다 알아요. 그런디 그제 여기 저 후원강사⁵⁰⁾ 게 막느라고 그 돌을 떠다가 거기 막았어. 그 백석포라는 건 아마 그 돌 땀에 생겼어. 백석포라고. 하얀 돌, 바윗돌 있어. 이런 영감들 다 알어.

여기 누가 있었슈. 아주 푹푹한 이가 김해 김썸디. “내가 삼한갑족이다.” 삼한갑족. 삼한갑족은 무얼 따지는데 하니, 그전 이 구한국⁵¹⁾ 그 전에 마한, 진한, 변한, 삼한이 있었어. 그래 그 때에 진골이니 어찌니 진골이라는 게 왕족이니 뭐니 아주 높은 계급이어서 우리네 보통 사람은 상대를 못하는 데였어. “내가 그 삼한갑족이다.” 그래니께 “에이, 니가 무슨 삼한갑족? 그래. 어한이, 포한이, 염한이.⁵²⁾ 그래서 삼한갑족이다.”

【백석포리 설화 2】

영인면 백석포리 노인회관, 1992. 1. 13. 한혜인, 방지선, 권민정 조사.

김동호(남, 82)

게으른 중 때문에 망한 절, 해변에서 영 놀던 이야기, 토정선생 순회기

삼백 년 전, 한 삼백 년 전에 어티기⁵³⁾ 된고 하니 여기에 절이 있었어요. 절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절이 부자가 아녀. 아니고 어이 그 하나가 가서 시주를 받아서 먹고 하는 그냥그냥 사는 그 때여. 그, 거기에 어티게 된고 하니 거기에 쌀 나오는 구녕이 있었어. 돌 틈에서 절에서 쌀 나오는 틈바구니가 있었다구. 그래서 인저 중 하나가 그 당시 시주를 땡겼거든. 시주 땡기기가 귀찮으니까 말여. 하나 먹을 만큼 나와. 둘이 손님네가 또 하나 있으면 둘이 먹을 만큼 나와. 열이면 열만큼 나와. 돌 틈에서 쌀이 나오는데, 아 이놈의 중이 시주하고 동냥하기 싫으니까 그 높을 대장간에서 쇠꼬챙이 들구 찌셨드란 말여. 아 그 이후부터는 쌀이 안 나오고 물이 나오네. 물이 나와. 그래 가지구서 그 절이 파괴됐다는 거여.

영 놀던 거?(조사자: 예, 그거 한 마디 좀 해 주세요.) 영 놀던 거. 여가⁵⁴⁾ 그 전에 해변이었어요, 아산만 뿔기 전에.⁵⁵⁾ 여기 여 아래 영목바위가 있어요. 군함처럼 바위가 생겼다구. 거기서, 영목바위서 조화를 부렸어요. 그래서 오후면은 영을 놀였어요,⁵⁶⁾ 영. 그게 된고 하니 상여도 메고 가는 것도 나오고, 가마도 메고 가는 것도 나오고. 그리구 안영이라구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이 이러키 토막토막 갈라져유. 그걸 안영이라구라, 안영. (청중: 지금 얘기하는 영이라는 게 지금 말하자면 신기루다 그 얘기여.)

이 아산만이 토정선생이 순회하는데, 여기 이 아산이 몇 월 몇 일에 터진다는 점괘가 나왔어. 그래서 전부 다 피난가라고 자기도 이르구서 말여. 아, 소금집 진 그 사람이 아, 그 밑에서 잠자는 거(청중: 그 얘기는 내가 저보다 더 잘 들었슈. 이거 저거 아까 저 영바위라고 했었잖아.)⁵⁷⁾

【백석포리 설화 3】

영인면 백석포리 노인회관, 1992. 1. 13. 한혜인, 방지선, 권민정 조사.

양승호(남, 61)

토정선생과 독장사

이거 저거 아까 저 영바위라고 했었잖아. 거기가 여기까지가 영역이었대유. 이젠 해일이 나서 여기가 바다가 되겠는디, 토정선생이 볼 적이는. 피난을 하라고 하는데 고지를 영 안 듣네.⁵⁸⁾ 그래 인저 토정선생이 하두 걱정이 되니까, 해일이 일어 터질 때가 됐는디 거기 가서 자는디, 들락날락 하는 거. 토정 선생이, 금방 터지게 생겼는데. 그러께 독장사가 거기서 자구 있다가 하는 얘기가 “뭘 그러키 급히 서두나, 아직 멀었네.” 군수보고 하는 소리가. 그러더니 밤 열 두시쯤 되니까 인제 독장사가 자구 와서 받쳤는 데가 아산만 저기 계두봉이라구. 이래 그 독장사는 자오상반⁵⁹⁾이란 걸 알았는지 토정선생은 자오상반을 몰랐다이 거여. 오시나 자시나 다 열 두시 아녀? 자시도 열 두시, 오시도 열 두시. 그래 자오상반을 몰랐다는 얘기여. 독장사는 알았고.

다. 영인면 마을 3 (성내리)

1) 조사일정

1992. 1. 14., 류지원 기록.

새로 편성된 3조는 중식 후 영인면 성내리와 역리를 찾아가기 위하여 2시 15분에 성내리로 출발하여 2시 40분쯤 성내리 2구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만났던 그 마을 주민의 안내로 노인회관에 도착하였으나 노인들은 놀이에 여념이 없어 조사자들을 돌아보지 않아 역리로 가던 중 마을 입구에서 성내리 2구 이장을 맡고 있는 박종록 씨를 만났다. 박종록 씨는 조사자들을 백금륜 씨네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그 마을 유래를 비롯해 <옹기장수보다 못한 토정선생>, <떼쓰는 선비 현명하게 혼내준 토정선생>, <이지함이 죽게 된 동기>, <장군바위에 혈박은 이야기> 등을 구연하였다. 3시 30분경에 구연이 끝나고 조사자들은 눈이 녹아 질퍽거리는 논길을 걸어서 4시경 숙소에 도착하였다.

2) 마을개관

【영인면 마을 3】

337-820 충청남도 아산군 영인면 성내리 2구

1992. 1. 14. 류지원 조사.

성내리 2구는 지리적으로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다른 마을에 비해 매우 낙후된 인상을 주었다. 마을에 들어서자 여기저기 쌓아놓은 벼섬들과 동네 주민들이 몇몇이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웬지 조사자들이 찾는 자료가 많을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이 마을의 자연부락 이름은 안골 또는 연향골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이 마을의 총인구는 320명이며 그 중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40%를 차지하여 청장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이 벼농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축산은 소득의 10%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마을에 있는 교육시설은 신화국민학교만 있고 중학교부터는 영인이나 둔포로 나가야 한다. 기타 특별한 공공기관은 없다. 이곳 주민들 대부분은 불교신자였고 기독교인은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30명 정도라고 한다. 마을 전체가 침체된 인상이었고, 농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3) 구연자

【성내리 구연자 1】

영인면 성내리, 박종록(朴鍾錄), 남, 41.

1992. 1. 14, 한혜인 조사.

경북 금릉이 원 고향이다. 이 곳에 살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마을 이장직을

말고 있으며, 부인이 작은 잡화상을 한다. 고등학교는 서울서 다녔다고 했고, 학생 때는 공부 안 하고 말썽만 피우는 학생이었다고 하며 웃었다. 사전 조사 나왔을 때 보았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조사자들을 보자 반가워하며 다가왔다. 노인정을 찾아갔다가 구연할 만한 노인을 만나지 못해 거의 포기하고 돌아서다가, 이장에게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연하게 채록할 만한 자료가 나와서 박종록 씨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백금룡 씨 덕으로 자리를 옮겼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거리감이 없이 대하고, 목소리도 우렁차서 무척 활달한 성격으로 보였다. 마을의 일을 도맡아 하고 마을의 어른들과 젊은이들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는 듯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이장의 역할이 그 마을에서 중요하다면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마을 전체의 이익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듯했다. 마을의 유래에도 관심이 많았고 마을의 미래에도 관심이 많았다.

백금룡 씨와는 평소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고 현 사회상과 농촌상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다. 백금룡 씨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반면에 박종록 씨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노인들을 좋아해서 노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고 하면서 <옹기장수보다 못한 토정선생> 이야기와 <떼쓰는 선비 현명하게 혼내준 토정선생>을 구연해 주었다. 그리고 <이지함이 죽게 된 동기>와 이 마을의 <장군 바위에 혈 박은 이야기>도 구연해 주었다.

4) 설화 자료

【성내리 설화 1】

영인면 성내리 백금룡씨 댁, 1992. 1. 14. 김동욱, 류지원, 한혜인 조사.

박종록(남, 42)

옹기장수보다 못한 토정선생, 떼쓰는 선비 현명하게 혼내준 토정선생, 이지함이 죽게 된 동기, 장군바위에 혈 박은 이야기

성내1. 앞

고것의 근거로는 고거가 지금 현재 샘이 하나 있고,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로는 그 분이 여기서 크진 않으셨어두 돌아가실 때면 서른 여섯 살 때가 여기서 돌아가셨대는디 정확한 지는 모르겠구. 오셨을 직이는 열 여섯 살 때 오셨었다구 그래요. (조사자: 아까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열 여섯 살에 원이 돼서 오니까, 나이 어린 원이 왔다구. 그래서, 뭐…….) 요 밑에 인저 이 불 빛이 마을에 흰히 비칠 정도로 등불이?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다. 그 때 인저 해일이 일어나서, 저 그렇게 성내리 삼구에 입구에 물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오셨었는데 그 전에 인저, 부임하시기 전에 풍수지리를 보른 잘 봤는데, 물이 이만큼쯤 찰 것 같다, 이기요. 이 많은 인민들을 다 구해야 뭇텐데, 자기네 집인데 거기, 저 바루 비닐 하우스 친 데, 거기서 밑에 있으니까 자기네 집은 안전하다 이거유, 자기는? 옛날 과거 집을 첫 번이 거기다 졌는데, 저 밑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제 가서 사실 자기 아는 대로 이야기 해니까, 10분두 안 되가지구서 다 죽게 생겼다, 마을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 목숨만 이

래두 건질라구서는 실킨 왔다는 거. 산비탈루? 백석포리에 오룡 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오렌지 산이라구 그랜다구, 전부(조사자: 오렌지산요?) 예, 지금두 오렌지산이라구 부르구 그 때 당시는 세상이, 오룡산이었슈. 오룡산. 구룡산 그 산은 구룡산이구, 저쪽은 오룡산이라구 그래슈. 거기 들어가믄은 해일이 깎아갓구 내려간 짝꾸가⁶⁰⁾ 지질학상으로 보믄 다 들어나지. 짝 썰어들어갓지. 그, 그 산중턱에 올라오니께 길두 하나 없는디, 옹기장사가 질 그릇 파는 사람,(조사자: 글세.) 그래서 인제 작대리를 받쳐 놓구서는 담배를 피드래는규. “여보, 여보 기왕 올라왔으믄 쪼끔 더 올라오라.”구. “거기 있으믄 물에 떠내려 간다.” 그러니께 “알지 못하믄서 딴 소리한다.”구 그렇기 받쳐 놓구 있더라는 거유. 토정선생은 댕 발자국 위에 올라와서, 이게 인제 무슨,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있으니까 아닌게 아니라 인제 지금 과학적으루 따지자믄 별과 별이 충돌해서 저쪽 별하구 이쪽 별하구 막바루 마주쳐서 인제 지구에 변화가 오는 건데, 응? 천체인력에 의해 변화가 오는 건데. 아니, 옹기장사가 그 작대기 밑이까지만 짝 끌어가구서는 물 한방울 안 튀기드래는 거요. 그 사람이 더 많이 알았다는 거지, 응?

그 전에 이 토정 선생님한테 거기에 마을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산에 정치가 잘 못 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러 온 거유, 관에. 근데 나이가 많이 잡수신 분이 오셔갓고, “당신이 정치를 잘못해 갓고 아침이는 바람이 말여 서풍이 불구, 저녁이는 동풍이 불고 응? 그래서 내가 댕기기가 참 무지하게 힘이 들고 내 갓을 잃어버렸단 말여. 그 래니께 내 댕 년 모아서 산 갓이니 말여, 갓 값은 말여 물어내라.” 그러니까는 이 어진 토정선생이 나이두 어리지만은 “물어주겠습니다.”한 거유. 그러믄은 저 거기한테 묻기를, 말을 묻기를, 사공한데. 아, 저 이 얘기가 꺼꿀루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인제 이방을 시켜서 저 말하자믄 그 당시 이방이였는지 직분이 확실히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로는 신분을 구분시켜서. 거기에 가서 여기서 예, 생산한 물자를 인천에 들어가서 파를 거 아니유? 거기서 인제 물건을 사 갓고 들어오구. 인제 인천에서 온 뱃사공하구 장사를 하는 사람하구 아산에서 장사하는 사람하구 두 사람을 빨리 데려오라는 거여. 그러니께 인제 데리고 온 거유. 댕고 와서 “당신은 동풍이 불었으믄 좋겠느냐? 물어보니께는 내려가는 배장사한테, 아 이거 동풍이 불어야 한다는 거요.” 아침이는 그러니께 옆에 있던 사람은 “무슨 소리냐.” 이거여. “서풍이 좋다.” 이렇게 된 거요. 그 인제 시비를 걸러 온 사람한테 “이 사람들을 잘 아냐?”구 하니께 “한치⁶¹⁾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아, 이 사람들아, 한 사람은 동풍이 불어야 좋아하구, 한 사람은 서풍이 불어야 좋아하니께 해일이 날 수밖에 더 있느냐? 모자가 떠내려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당연한 이치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게 뭐 있느냐, 잉?” 그래가지구서는 사전에 그 석수를 시켜서 돌을, 큰 돌을 가져오라서 깎아놔어유(조사자: 돌로?) 예, 그래서 판결을 딱 내리면서 “들구 들어라.” 이거요. “여기는 돌이 많은 고장이니 내가 선물을 줄 것은 이것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 갓을 쓰믄은 절대로 바람에 안 날려 갈 것이니 가서 잘 지내고 있으라.” 장정들이 돌을 갓다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 갓다 올려놓으니 일어나믄 큰일 날 것 같구 땀만 뻘뻘 흘리다가 “잘못했습니다. 봐주십사.” 했다는 거유. 나이는 그렇기 어리구 그랬어두 천지나 무슨 지방 특색을 이런 것은 잘해서 그 동안 있을 동안에는 잘 지내고 있었는디.

그 분이 어떻게 해서 죽었냐하믄 직속 부하들에게 죽었대유. 도움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지금두 한방은 참 무시 못하는 거 아냐? 그 분이 예, 지네를 잡아서 생즙을 해서 잡순 대요. 그러든 머리가 좋아지구, 뭘 땅의 정기를 선별할 수 있는 보약이래유, 지네 생즙이? 근디 고거를 밤을 깎아서, 밤을 깎아서 세 야식⁶²⁾을 드신대는 거유. 지네를 한번 잡숫구 나서(조사자: 생밤을?) 예. 생밤을 그걸 먹으면 인제 체독이 되는 거지유. 축지법을 토정선생님이 사용하는데, 부하들을 데리구서는 양쪽이 서발되는 꼬내이⁶³⁾를 매가지구서는 축지법을 가르키면은 그걸 붙잡고 다닌대요. 바로 그 직속 부하들한테 축지법을 가르키러 구룡산에 가가지고, 참 자기가 인제 세월이 뭐해고 그러면 요긴하게 쓸려고 금 한 돈, 은 한 돈을 물어왔다는 거요. 예, 그거를 구룡산에다가 물어왔는데 구룡산에 댜고가서 하루는 그걸 보여줬다는 거요, 주문을 외워가지구. 자기는 말하자문 하나의 시운이 다하든 꼬내서 쓸라구. 근데 부하들이 그거를 욕심이 나가지구서 둘이서 싸가지구서는, 토정선생이 결혼을 안 했대유, 결혼을. 그때 당시? 결혼을 안 했을 땐데, 말로는 총각으루 죽었다는 규, 옛날 노인네들은. 욕심이 나가지구선은 아침에 지네를 독하게 해가지구선은 땅버드나무라는 것이 있슈. 버드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드나무 곁이 박속마냥 고운 버드나무가 있어유. 땅버드나무라고 이파리가 요렇게 저쪽에 보든 테가 이렇게 달린 게 있어유. 그게 속이 좋아요. 그게 속이 박 속같이 희다고, 나무가. 그것을 깎아다가 갖다 준거요. 예,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해 줬으니까 먹구서는, 그걸 집어 먹어 보니까 밤이 아니지. 지네독이 퍼져갖구서는 죽었다는 거요. 낭중이⁶⁴⁾ 머리가 길었는데 누일라구 증리⁶⁵⁾를 해다 보니까, 비상약으루 시들시들하게 끓은 밤이 여기서 세 톨 나오드래, 머리서. 숨겨 놓은 거지. 비상으루 그렇기 해는 사람도 죽었다 이거요, 부하들이 시기해서. 그 뒤루 여기에서 자취두 읊구.

장군바위는 저기 오렌지산에 가든 있어유(조사자: 아, 그래요?) 그 산이 오렌지산이 아니라 오룡산, 오룡산 그렇다는 규. 거기 가든 장군바위가 있어유. 그건 누가 새긴 거는 아닌데 바위가 이렇게 있구, 우리가 여러 번 가봤거든유. 말 발작하구⁶⁶⁾ 사람 장군 발작, 옛날이는 그(조사자: 발자국이 있어요?) 바위에 그게 있는데 말이. 바위 하나에(조사자: 하나에.) 하나(조사자: 장군 났다는 얘기는 없나요?) (청중: 장군 났다는 얘기는…….) 이건 이런 것이 그 전이 인저 그 때가……. 기억력두 읊구,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모르겠는디……. 이여송 장군이 저기 저 청나라 장승⁶⁷⁾이 아냐? 이쪽이 인저 토요토미 히데요시,(조사자: 임진왜란.) 임진, 임진왜란 고 전 얘기인디 얘기가. 그건 혈맥 끊었다는 규. 거기는 여기서,(조사자: 어디를 끊었다구 그래요, 여기?) 예. (조사자: 여기가 어디예요?) 저쪽으루 가든 있어유. 거기 하나 있구. 저 강촌리에 들어가는 데 영인산 줄기 그 월선리 그 옆이 장군 만드는 데, 월선리 장군 만드는 데, 거기 끊구, 이 쪽의 혈맥이 산이 이렇게 해서 저 쪽이 이어지는데, 거길 끊었다는 규(조사자: 여기는 구룡산 줄기인가요?) 아니 구룡산은 줄기는 아냐. 구룡산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땅, 저기이구. 여기는 이충무공 산소 쪽으로 나있는 거쥬. 바루 요 넘어가 이충무공 묘소가 있는데(조사자: 장군이 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르겠어유, 가는 디마다 다르니까. (청중: 일본 애들이 쇠파이프루다가) 강철루 갖다가 찍어 녹물이 나게 (조사자: 어디가요?) 땅에다가 파구 바위에다가 지반까지 끊구서는 거기저 쇠파이프루 찍어 녹물이 들어서(조사자: 여기도 그런 테가 있어요?) 예. (조사자: 어디요?) 그 돛질 넘어가는 데 있어유. 돛질, 성내리 3구.(조사자: 자연부락명이?) 예.

라. 영인면 마을 4 (신봉리)

1) 조사일정

1992. 1. 14., 황재영 기록.

조사자들이 석곡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는 3~4명의 노인분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조사자들이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주위 분들이 탐진 최씨 할아버지를 추천했다. 이 분은 “그럼, 내가 두 가지만 얘기 해 주마.” 하고는 선뜻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시원스레 자연스럽게 말하는 품으로 보아 평소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인 것 같았다. 얘기를 할 때는 손짓을 많이 하고, 한문 수학을 하신 분답게 한자를 많이 섞어 쓰고, 바닥에 손가락으로 한자를 쓰기도 했다. 잠깐씩 이야기를 쉴 때는 눈 밑과 입술이 약간씩 떨렸다. 당신의 이야기에 자신에 차 있었으며, 자신이 얘기를 잘 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의식하고 있는 듯했다. 청중들은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라고 구연자를 부추기기도 하고, 옆에서 한 마디씩을 거들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화투를 치느라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최승교 씨도 화투를 해야 한다면 이야기를 그만 두었으나, 조사자들의 끈질긴 요청에 마지못해 얘기를 더 해 주었다.

2) 마을개관

【영인면 마을 4】

337-820 충청남도 아산군 영인면 신봉리 2구

1992. 1. 14. 권민정 조사.

석곡이라는 자연 부락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인면 신봉리는 인근 마을과 별다른 없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총 100세대가 살고 있는데 남녀별로는 여자가 약간 더 많다. 행정기관이나 교육시설이 없어서 가까운 시내로 나가야 한다. 이 마을은 매우 조용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 소가 집집마다 있고, 젓소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도로 공사중이라서 길도 많이 지저분하고 차도 전혀 다니질 않아 매우 불편했다.

3) 구연자

【신봉리 구연자 1】

영인면 신봉리 2구, 최승교(崔承敎), 남, 74.

1992. 1. 14, 황재영 조사.

학력은 한문 수학을 했으며, 직업은 농업과 상업이다. 외모상의 특징은 반백머리와 얼굴에 점점이 검버섯이 있다. 이 마을에는 4대째 살고 있으며, 마을에선 탐진 최씨 할아버지로 알려진 듯 하다. 제공한 자료는 <7대 후에 벗은 살인 누명>, <평양기생 일지매를 수청들게 한 임백호>, <황희 정승의 청렴>, <토정 선생이 죽게 된 내력>이다.

【신봉리 구연자 2】

영인면 신봉리 2구, 김규홍(金奎弘), 남, 61.

1992. 1. 14, 황재영 조사.

학력은 소학교를 졸업했으며, 직업은 농업이다. 이 마을에는 5대째 살고 있으며, 나이에 비해 굉장히 정정하고 젊어 보였다. 얼굴은 둥근형이며 눈썹이 굵고 검다.

이 분은 좀 나중에 경로당에 나오신 분으로, 처음엔 이야기를 안 하고, 최승교 씨를 계속 부추기고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다가 최승교 씨가 이야기를 해 주지 않고 화투에 몰두하자, 조사자들이 계속 조르는 것이 보기에 안타까웠는지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얘기하는 동안은 적극적이었고, 그것을 즐기는 듯했다.

4) 설화 자료

【신봉리 설화 1】

영인면 신봉리 2구 석곡, 1992. 1. 14. 전연숙, 권민정, 황재영 조사.

최승교(남, 74)

7대 후에 벗은 살인 누명, 평양기생 일지매를 수청들게 한 임백호, 황희정승의 청렴, 토정선생이 죽게 된 내력.

신봉1. 앞, 뒤

옛날에 말이여. 한 가족이 잘 살어. 근디 사랑 문 앞에 대추나무가 있다는 말이여, 대추나무. 음 근디 이 노인넨 사랑에 있다가 갑갑해서 사랑 문을 열었어. 근데 이웃집 애가 대추나무에 올라가서 대추를 따먹다가 사랑문을 별안간 여니께 애가 잘코박에⁶⁸⁾ 떨어져 죽었던 말이여. (청중: 깜짝 놀래서 떨어져 죽었구만.) 잉. 근데 이 동토태미던지⁶⁹⁾ 아, 그 문 열은 죄로 그 아우가 칠대에 가 살려내지 왜 그러. (청중: 그게 참!) 음 칠대에 가서 뭐 한단 말이여. 그래서 자기가 썼어 써서 노트에다 접어서, 글로 주매,⁷⁰⁾ “이게 칠대에 가서 우리 뭐하는디, 그때 이거를 원⁷¹⁾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그제 여러 해 내려와 칠대에 가서 그러니께 안에서 군수를 갖다 줬어. 군수, 군수를 갖다 줬는디, 곁봉을 딱 보니께, ‘동원마루,⁷²⁾ 아 동원마루 가운데서 이걸 뜯어 봐라.’ 그랬거든. 곁봉에. (청중: 마을 가운데서?) 아니, 동원마루, 동원 마루 가운데 와서 읽어라(조사자: 아, 동원마루.) 잉. 그래서 가운데 가서 뜯어서 보날께⁷³⁾, 그 동원 대, 대덕보⁷⁴⁾가 부러져 척 가라앉어. 군수가 정사를 하려면 동원지사⁷⁵⁾에서 하는 거거든. 거기 그걸 보고선, 뜯어선 인제 보니께, ‘너를 살려주니 내 칠대손을 살려달라.’구 그러더래.(유쾌한 듯 웃으며) 그 죽이겠나, 그래서 살았어. 잉. 그 몇 년 뒤에도, 그 칠 대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나오는데, 악행하지 마라. 그거여.

위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야기 한 가지로는 체면이 서질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또 해줘?”하

면서 이야기에 열을 올리며 시원스레 다음 이야기를 했다.

평양에 일지매라는 기생이 있는데,(조사자: 일지매요?) 잉. 천하일색이여, 천하일색.(한숨을 쉬며) 그런데 가무도 그렇고, 지주⁷⁶⁾도 그렇고, 이려. 그래 평양 감사가 가서 수청을 들래도 못 들러, 응. 그래 인저 구관은 올라오고 신관이 내려가게 됐어. 그럼 인제 송별주가 있잖아? 그래 고문좌석들끼리⁷⁷⁾ 이렇게 있는데 모여설랑 저기 하는디, 그 구관이 그러거든. “올라오고 내리고 들어 왔는디, 자네는 이번에 내려가걸랑 일지매를 꼭 수청 들리게, 난 못 들렸으나 수청 들리게.” 크, 매 때려도 소용없어. 매를 때리고 뭐 악행⁷⁸⁾을 해도 말을 안 들어. 일지매라는 기생이 어떻게 지조가 높은지.(청중: 지조가 높아서.) 임백호⁷⁹⁾가 있다가 “에이, 이놈들아. 한 도의 감사로서 일지매 하날 어떻게 못 하느냐?”고 말이지, 이랬거든. 네까짓 걸 그만 두고 감사도 되는데, 그 때 임백호, 임백호라는 선생이 그 때 남, 청랑⁸⁰⁾이라는 벼슬을 알아? 청랑이라는 건 낱알 녹두도 못 먹어. 그냥 고분백관⁸¹⁾ 집만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지. “만약에 내가 가서 수청을 들린다면…….” 임백호가, 그러니젠 이 임백호가 글 잘하고, 옥통소도 잘 불고, 호풍하고,⁸²⁾ 참 그래. 벼슬을 안 살어(청중: 시조도 잘하고.) 음 에헴. 그러디, 내가 “만약에 니가, 만약에 가서 수청을 들리면 서울다⁸³⁾ 누각을 쳐서 인생을 거문고 속에다 살다가 죽게 해 주마. 대장부로서 일구이언은 없느니라. 여기다 서명 날인해라.” 아 그런게, 아 설마 임백호가 가서 일지매 기생을 그거 수청드……. 죄 자기 서명 쓰고, 서명 쓰고 이렇게 도장 다 해 쫘다구. 곧장 거기서 말 하나 타고, 탄 거여. 그 고분대가집으로 댕기는 사람이니께, 외관으로도 여간 좋아?(청중: 평양을 가구.) 음, 근디 내 가서 하루 저녁 자구 가니께, 백죽날,⁸⁴⁾ 칠월 백죽날 되더려. 봉로방⁸⁵⁾에 가서, 그 옛날 평양에서 그 (녹음불량) (말에 힘을 주며) 제일 아주 드림뱅이,⁸⁶⁾ 새카만 놈. 그꾸서 바꿔 달라구,⁸⁷⁾ 안 바꿔 줄 놈이 어디 있나? 바꿔 입고, 수건도 났다구. 썩카만 수건 머리애다 지끈 메고(청중: 거지 같으지.) 잉 거지 행셀하구, 저 들림⁸⁸⁾ 지게 “아, 거기 수북한데 아무꺼나 집어 가라.” 구. 들림 지게 지구 가서, 고 이튿날 민어 두 마리 샀어. 하난 크고, 하난 적은 두 마릴 사구, 일지매네 집은 내려가면서 다 알아두구. 민어 두 마리 사서, 일지매네 집을 뺑뺑 돌면서 “민어 드렁 사류, 민어 드렁 사류.”하고 댕기는 거여. 헌데 일지매는 이거 신임감사가 오면 자기는 수청 들라구, 매 때리구 별짓 다 해. 아무 정신 없어. 근데 기생 심부름 해 주는 쪼꼬만 삭시가, 애가 있는데(청중: 몽종이지) 음. “아씨, 아 내일이 칠월 백중일인데 민어 안 사실라우?” “아, 내가 정신이 없구나. 민어장사 불러라.”(아, 그게, 그게 임백호지.) 쪼로록 내려 와서는, 쪼라와서는⁸⁹⁾ “민어장사, 우리 아씨가 들어오래요.” 인제 쑥 들어갔거든. 아, 일지매를 보니께 참 자기 맘에 든다는 거여.(청중: 일지매가 그렇게 생겼구만.) 음. “한 마린 얼마우? 큰 건 얼마구, 작은 건 얼마?” “큰 건 엽전 다섯 푼만 주구 ……” 엽전 쓰는 시절이니께, “작은 건 엽전 세 푼만 주시오.” “큰 거 한 마리 들여놓 ……” 큰 거 한 마리 팔구 쥘일⁹⁰⁾ 자는 겨. 해 넘어 갈 땔 바라구. 해가 한 꺾질 남았는데, 임백호가 또 쫓아 들어 간 거야. 쫓아 들어가서, “아씨, 이거 한 마릴 쥘일 못 팔아서 이거 엽전 두 푼만 내놓고 들여놓으시우.” “아유, 거 안 됐구려. 들여놓고 가시우.” 엽전 두 푼 던져놓고 “이 일곱 푼밖에 더 되나. 내가 여기설라든 집에 갈려면 한 칠십 리를 가야 하는디, 문 밖인디…….”거짓말을 하는 거여. “아, 나 여기 헛청⁹¹⁾이라도 자게 해 주시우.” 그러니께, “아 여보, 우리 방두 없구, 어디설라든 자느냐?” 말이여. “아, 글썄, 아무데라도 달라.” “아, 그럼 아무케나 하라.” 구. 그래서 들오다 그만(녹음불량) 거 그 집에서 저녁 한 술 은어 먹고, 들어누웠는디, 칠월

백중, 칠월 보름이라 달은 밝어 횡청⁹²⁾하다구, 하단 말이어. 아, 일지매가 거문고를 가지고 나와서물랑 거문고를 타는겨. 그라니께 임백호 선생이 품안에서 옥통소를 그 곡조에 맞춰서 부르거덩. 하 참. 아, 일지매가 깜, 근데 참 평양 구내에선 그 곡조 아는 사람이 없는디, 그 곡줄 부른단 말이어. 깜짝 놀라서 거문고 도로, 아 옥통소도 똑 끊어지네. ‘아, 이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나를 놀리나?’ 바깥에도(녹음불량) 이거 사람은 없어. 근저 들어오는 겨, 찾다 못 찾아서. 들어와서 마루에 올라서며 글 한 짹을 짓는 겨. ‘백창에 회황월하니⁹³⁾. 백창에 밝은 달이 비췌으니 말이어. 그 짹을 못 찾았으니 일지매가 머뭇머뭇 하는디, 아, 임백호가 천하 문장 아닌가? ‘헌종태고평’⁹⁴⁾이다. 마루헌(軒) 자여. 마루에 태고의 바람이 지나갔다. 하, 일지매가 그 짹을 본께, 참 기가 막히다 그거여. 그래 또 ‘누가 이렇게 나를 놀리나?’ 하고 또 좀처럼, 그지들을⁹⁵⁾ 가 들여다 보니께, 코만 드릉드릉 생글고 있는데. 그래 아무케도 생선장사가 의심이 난단 말이어. 그래 올라 가면서 생선장사한테 잔뜩 유의를 하고, 또 글 한 짹을 짓는 겨. ‘금금은 수소구고.’⁹⁶⁾ 비단 이불은 누구와 더불어 같이 할꺼냐. 그랑께 임백호가 ‘객치이루금이다.’⁹⁷⁾ 얼른 짹을 찾아 쫓단 말이어. 객의 벽의⁹⁸⁾한 귀통이가 비어 있어. 그럼, 금금은 수소구고, 비단이불은 누와 더불어 같이 할까나 객치미루금, 객의 벽의 한 모통이가 비어 있어. “어떤 좋은 양반이 이렇게 속을 썩이고 나를 놀리나?” 하구 “일어나시라.”구. 그래서 인저 데리구 들어갔단 말이어. “아, 도대체 누구시오?” 그라니께 “난 서울 사는 임백호.” 그런데 이 일지매가, 그 임백호가 옥통소 잘 불고, 글 잘 하고, 호풍하고. 그래서 그 임백호를 한 번 만날라구 그랬었어, 일지매가. 헌데 여간 잘 만났나봐. 그렇잖아도 기생이 옷 한 벌을 안 해 났겠어? 그 옷 한 벌 꺼내서, 참 좋거든, 일지매가 마음에 꼭 든단 말이어. 그 날 저녁에 수청을 들어버리는 겨. 아, 신임 감사가 인제 내려와서, 내려와서 벌써 수청 다 들린 후에. 신임 감사가 와서 공사는 말을 생각 앓구 일지매부터 불러오라는 겨. 아, 일지매 부르러 갔는디, 임백호가 아, 동원마루에서 이렇게 보니까 임백호, 참 같이 온다 그거여. 그 신임 감사가 “나는 서울을 못 올라가니 누는⁹⁹⁾ 못 지어주고, 여기서 내가 잔치나 벌여주고, 잔치 해 주도록.” 그래 임백호가 일생을 거문고 속에서 살다 죽은 이여.

간신배나 두 인군¹⁰⁰⁾을 섬기지. 예,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는 뱀이 없어. 그래서 충신은 불사이군¹⁰¹⁾이여. 열녀는 불경이부,¹⁰²⁾ 열녀는 두 지애빌 섬기들 아녀. 거기설랑은 고려말에 벼슬살던 이가, “이성계가 뭘 아니? 장군이다. 장군은 정치를 모른다.” 나갈 사람은¹⁰³⁾ 황희, 원래 청백하거든. 원래 청백리 했던 이 아녀? 황희가. “나가거라.” 할 수 없이 백성을 위해 나왔어. 이 아, 이성계가 황희같은 일¹⁰⁴⁾ 얻으니 여간 좋은가. 이 날깬 얻은 거지. 황희를 무지하게 위했지, 아주. 근디 이성계가 그걸 먹덜 아녀¹⁰⁵⁾. 황희 아내 정경부인이 앞을 못 가려. 치마가 천 조각 만 조각 그냥 갈래갈래, 그 안 먹어 그렇게 황희가 무서운 이여. 하늘에서 누루 황(黃)자, 기쁠 희(喜)자여. 기쁠 희가 (바닥에 손가락으로 쓰며) 요케, 요러카고, 요기 입 구(口) 둘하고 요렇게 둘도 기쁠 희(囍)자 하날 해도 기쁠 희(喜)자여.

지네 강즙을¹⁰⁶⁾ 먹어, 지네. 지네 강즙을 먹는디, 아 달이 밝어. 화창한디, 아전을 “애, 어디 좀 가자.” 그런데 그 아전보구 “너 이 바울¹⁰⁷⁾ 좀 떠들어라.” 아, 떠드니께 금이 한 독 가득 있어. 또 “이 바울 가서 떠들어라.” 또 떠드니께 은이 한 독 가득 있어. 한 군데 가서 “이 바울 떠드…….” 은이 가득 있어. 또 한 군데 “아, 떠들어라.” 금이 한 독 가득 있네. 금 세 독 근에¹⁰⁸⁾ 은 세 독근이 있다는 데야 거기, 그래서 아전이 군수를 죽여야갔거든. 여긴 현령

동이야, 아산은, 군수동이 아니고.¹⁰⁹⁾ 그래 미루나무 밤 같이 생긴거, 근데 지네 강즙을 먹고서 밤을 먹어야 지네독이 제독이 돼서 사는 거거든. 아 그걸 딱 깨물으니깐 밤이 아니거든 미루나무거든. 아쿠, 그래 돌아가셨어.(조사자: 아, 밤 색깔이 하얗고, 미루나무 색깔이 하얗서 그런 거죠?) 그렇지.

【신봉리 설화 2】

영인면 신봉리 2구 석곡, 1992. 1. 14. 전연숙, 권민정, 황재영 조사.

김규홍(남, 61)

속골유래, 도깨비불 이야기, 철봉리 목산동티에 얹힌 이야기

신봉1, 앞

이조 때에, 이조 때가 뭐여? 뭘 때도 몰리. 요 골사리가¹¹⁰⁾ 뭐 골로 될까? 군으로¹¹¹⁾ 될까? 군으로 될까? 골로 될까? 그래서 석골. 원이, 원요. 그 살다가 다른 데로, 더 큰 곳이여. 여기 아산군인 군수가 있다가, 온양으로 갔다가, 여기가 그렇게 됐다가, 뗐대여. 몇 십 년 여기 살다가 오산으로. 그러니까 이조, 이조 초기. 이조 초기 때 그래가지구 골이지. 군, 그때는 군을. 골을 갖다가, 지금 군을 갖다가 그때는 골로 불렀단 말이여.¹¹²⁾ 그래가지고(조사자: 여기 돌이 많았던 말이에요?) 뒷산에 대략 짝 찼었지. 지금도 많고.

잉, 집이 오래 돼 살다가 인저 저기 묵었잖아. 목거나 산 같은데, 비 오는 날 길가 가며는 옛날에는 도깨비가 논다구(청중: 번쩍번쩍해.) 에, 그 때 시절에는 밭이다가 원두 차매를 놓구 수박을 놓구 지키잖어?¹¹³⁾ 그 때는 개우도¹¹⁴⁾ 호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 그 때 원두막에서, 모래를 끼었어, 옆당이 원두막에. (조사자: 도깨비가요?) 아니, 호랭이가 끼었어, 사뭇 끼었는다고. 불을 인제 자동불처럼, 화¹¹⁵⁾ 기를 죽여버려, 사람을. 그러면 담요 이불을 담요로, 저 담요로, 저 꿈쩍 못해야지, 내려왔다, 열썬거렸다는 야단나. 무서¹¹⁶⁾ 기가 떨어져, 그 때 우리 소시 적, 한 이 십대 정도 열 댓살, 한 사십 년 전, 사십 년 전 얘기야, 한 사십 년 전. 지금은 없어. 호랭이도 없구, 차츰 없어져. 여우 같은 거. 도깨비가 현재 우리집 저 고을 집인디, 내가 열니 살인가? 열 네 살 적인게 이십오 년, 사십오 년 전이여. 사십칠 년 됐네. 그 때만 해도 왜정 초긴디. 왜정 때 열일곱 살에 해방 됐응께. 열니 살, 열시 살. 열니 살이면 왜정 때여, 왜정 때. 그 오두막집 조끄만 집에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갔는디, 그 뒷집에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있는디, 저게 저 여기 이찬우씨라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텅 비었는디, 고 뒷방에서 인저 사촌이랑 가만히 자며는 톱소리도 나고, 뭐 쓰는¹¹⁷⁾ 소리도 나구. 골갱이¹¹⁸⁾, 절구갱이¹¹⁹⁾ 그 때는 그 막대기가¹²⁰⁾ 아래 위가 있었다구. 쌀도 쪼고, 보리도 쪼고. 보리를 찌서 저기 밥을 해 먹었거든. 물을 붓조, 보리에다가. 방아가 그 때는 읊다구. 그러며는 그거 쪼는 소리가 세시, 밤에 세시여. 밤에 새로 두시에. 12시가 아니고, 새로 두 시가 되면 소리가 나. 살살 밭자국 안 내고 내가 가봐. 근디 그 때 문 앞에까지 가서 바짝 서면 없어. 안 나거든. 무슨 조환지 몰라. 또 집에 내려와. 내려와서 그럼 가만히 있어. 한 반시간 있으려는 또 나. 또 나.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없다구. 그러구 불이 이렇게, 저기 뭐냐, 별똥 떨어진 것처럼 쪼끔만끔씩 해가지구 죄다 …….(조사자

: 그럼 그게 도깨불이예요?) 잉, 도깨비불, 도깨비불.(조사자 : 어렸을 적엔 많이 보셨겠네요?) 잉 어렸을 때엔 봤지, 빈 집서. 사람이 안 살어. 근디 아무래도 아무도 못 자, 무서워서. 근디 지금은 그게 없어.

지나가다가 그저 동네를 정자, 믿는 사람은 돌맹이를, 돌맹이를 가져다가 그 정자나무 고개에 있으면 던져주고 가데. 왜 그러는지 몰러. 그러서 인제 그 나무 밑구렁에¹²¹⁾ 돌맹이가 잔뜩 쌓였어. 그런디 지나가는 사람마다 던져주고 간다구. 왜 그러는지. 그런 나무가 있다, 근데 그 나무는 비지도¹²²⁾ 못하구. 그래서 인제 그런 애길 한번 해야겠구만. 해방도 되고 나서 이 대통령 시절에 인제 지서에서 여기 인제 지서라구, 지서장이지. 여기 참, 나무를, 그 때는 여기 지서를 참나무를 갖다가, 참나무를 갖다가 빼개서 그 부락에다 “집집마다 한 짐씩을 저와라.” 말여. 자기네가 나무 얻어 쓰니까. 그거를 지서장이 그 부락민들이 꿈쩍 못하고 해방되구 나서 없으니까 그, 저 갔잖아. 그런데 서낭나무 같지 아마? 서낭나무를 그 참 “나무가 없으니까 베어 가져와라.” 그거여. 그랬는디, 갖다가 그거를 집에다 뒀는디, 그 아들이 스무 살인가, 열아홉 살인가, 지서장 아들인디, 그 때 생목 그거를 그때서부터 앓더려. 앓는디 약을, 병원 가서도 안 들어먹고, 약을 써도 안 들어먹고 해서 지서장 부인이 점쟁이를 무당한테 점을 하니까 그 ‘목살동태 났다.’구 그러. 서낭나무를 벼서.¹²³⁾ 절을, 가는 사람마다 절 받고, 돌맹이라도 던져주고. 그래가지구선 절을 받은 다음에 갖다가 길가에다가 쌓아놔응께 ‘동태가 나도 목살동태가 났다.’구. ‘굿을 해야 한다.’구. 그래 지서장 보구 그런 애길 허니까, “아, 안돼. 내가 영인면을 지서장 책임을 지고 있는데, 말려야. 미신을 못하게 말려야 되는데, 지서장 집에서 굿을 하면 면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못 허게 하는디, “그럼, 못하면 아들을 죽일 꺼냐?” 부인이 하는 말이, “아들을 죽일 꺼냐?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 “못 하면 죽는다.”고, “위험하다고 생명이.”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 찔른 거. 주사 맞고 죽었어. 주사도 안 듣는 거. 약도 안 듣는 거. 저길 떼야 한다고.¹²⁴⁾ 그래서 아들 죽였잖아.(조사자: 그 동네 이름이 뭐 예요?) 칠봉. (조사자: 지금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지. 나무는 없지. 비어 갔으니까.

마. 영인면 마을 5 (신현리)

1) 조사일정

1992. 1. 14., 방지선 기록.

월선리에서 조사를 마치고 진흥길을 걷고 걸어 오후 2시 40분 마침내 신현리 노인회관에 도착했다. 그러나 사전 조사를 하지 못한 탓으로 노인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 조사자가 취지를 설명하자 반갑게 맞아주며, 이관훈 씨가 <재물을 노리고 토정선생을 해친 아전>과 <고려장에 얹힌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안창모 씨는 <효자 유균>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특히 이관훈 씨는 요즘 청소년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으며 한자를 많이 알아야 이 나라가 발전한다고 강조하였다. 노인도 몇 분 없고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될 것 같지 않아 오후 3시 30분에 조사를 마치고 신운리로 향하였으나 1구부터 3구까지 이장도 노인회관의 노인들도 아무도 없어 오후 5시 45분에, 신운리 노인회관에서 숙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2) 마을개관

【영인면 마을 5】

337-820 충청남도 아산군 영인면 신현리

1992. 1. 14. 박은실 조사.

신현리란 마을은 이전의 차현과 신천의 두 마을을 행정관리상 묶어 놓은 마을이었다. 그래서 서인지 집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다. 신현리 주민은 요즘 들어 노년층 인구가 급격히 준 상태였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축산도 약간 겸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가 없어 인근도시로 나가는 형편이며, 도시의 영향으로 양육과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체로 유교적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으며, 해마다 정월에 산신제를 지내어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고 보름에는 사물놀이를 하는 등 노년층 인구가 적은데 비해서 옛 풍습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었다.

3) 구연자

【신현리 구연자 1】

영인면 신현리, 이관훈(李琯薰), 남, 67.

1992. 1. 14, 방지선 조사.

농사일을 하는 평범하고 젊어 보이는 이관훈 씨는 5대째 이 곳에 거주하고 있다. 고유한 충청도 사투리에 한자어를 많이 섞어서 쓰면서 조사자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싶은 것은 바닥에 써가며 이야기한다. 특히 현대 청소년들에게 많은 불만을 표시하며, 한자를 많이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청중은 몇 사람 되지 않아 모두 귀를 기울여 들으며 보조설명을 해 주기도 했다.

구연 자료로는, <재물을 노리고 토정 선생을 해친 아전>, <고려장에 얹힌 이야기>가 있다.

【신현리 구연자 2】

영인면 신현리, 안창모(安昌模), 남, 68.

1992. 1. 14, 방지선 조사.

점퍼 차림과 피부가 검은 것을 보아 농부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안창모 씨는 8대째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차분한 어조로 처음부터 내내 조용하게 이야기하였다. 조사자들의 방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몇 안 되는 청중들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주의깊게 듣는 편이었다.

구연 자료는 <효자 유균>이 있다.

4) 설화 자료

【신현리 설화 1】

영인면 신현리 노인회관, 1992. 1. 14. 유주현, 방지선, 박은실 조사.

이관훈(남, 67)

재물을 노리고 토정 선생을 해친 아전, 고려장에 얹힌 이야기

신현1. 앞

한산 이씨여, 토정선생이. 한산 이씨디 이 아산 군수루 부임을 해 왔어요, 그전에. 해왔는디 한교가¹²⁵⁾ 이 아산에 지금 현재 있는 디가 아니구 저 멀리 가는 디 한교골이라구 있었어요. 그 한교를 이 현재 있는 아산읍에 한교로 옮겨놔어,¹²⁶⁾ 자리를, 토정선생이. 그러기 해 놓구 서는 인저 아전이지. 지금으루 말하든 군수지, 그때는. 이 군수고, 인저 그 부하는 인저 내 무과장이니, 재무과장이니 이렇기 있겠구. 이 사람네들, 아전을 데리구서 저 고려산엘 갔어. 고려산엘 가서 토정 선생이 그 아전 보구서 “이 바위 좀 쳐들어 보라.” 한디 당장같이¹²⁷⁾ 커다란 바윈디 말이지, 아 일으키라구 한단 말여. 그래 들으니까 그냥 버쩍히¹²⁸⁾ 종이조각같이 올려간다 이거여. 보니까 금이 세 향아리가 들어 있다 이거여. “놓으라.”구 하구서는 그 다음에는 또 한참 가더니 “이 바윗덩이 들어보라.”구. 그래 그 바윗덩이 역시 큰디 들으므는 종잇장 같이 올려간다 이거여, 바위가. 떠들러져. 그래 거기 가 보며는 은이 또 세 향아리가 들어있어. “그것 노라.”고 하구서는 또 판 디를¹²⁹⁾ 가서, “애, 이 바위 좀 들어 보라.” 하니께 또 들으니까 역시 종잇장같이 들려 올라가. 그래 그걸 들어보니까 거기는 인저 동, 구리지. 그게 세 동이 묻혀 있더라 이거여. 그래 인제 거기 수행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토정을 없애며는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게 될게 아니냐.’ 해가지구 공모를 했어. 그런데 토정 선생이 신병이 있어가지구 이 지네생즙을 먹었어. 지네 생즙을 먹게 되므는 이거를 제독을 시켜야 하느디, 뭇이가 제독이 되느냐 하므는 밤이 제독이 된다는 거여, 생울.¹³⁰⁾ 그런데 이 지네생즙을 갖다 주구선 밤 생울을 쳐다 줘야할 턴디 그걸 갖다 주지 않구선 버드나무, 미루나무를 깎아가지구 밤같이 맨들어서 갖다줬다 이거여. 그래 이 양반이 그 생즙을 먹구서는 밤을 씹어 먹을라구 그러니까 이게 씹혀야지. 안 씹혀. 그래 그냥 거기서 돌아갔다 이거여. 이 분이 돌아갔는디, 인저 그 모의한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를 찾을라니 세상천지에 찾아져야지, 있시야지. 읊어. 보이질 앓어. 그래 인저 그 때에 그 토정, 살해해가지구서는 이 아산군이 한 계급 낮아졌어. 현령이였는디, 그 전에는. 현감으루다 떨어졌다 이거여. 상관을 시해한 아주 나쁜 아전들이라구. 그러한 말이 전해 오지.

참, 아들이 효잔디, 어머니를 모시구 사느디, 어머니가 인저 연세가 많아가지구서는 고려장을 하게 되었어. 그런데 아들이 도저히 어머니를 갖다 지게루 저다 고려장을 시킬 도리가 읊어, 마음이 약해서. 그러나 그 때는 법칙이 참, 고려장을 하게 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저희 어머니를 지게에다 짊어지구 그러하구서는, 때는 어느 때냐 하든 오동지선달인디,¹³¹⁾ 눈 속이 저희 어머니를 지게에 짊어지구서는 산중으루 산중으루 참 가느디, 저희 어머니는 그래두 그 아들이 안타까워서 갈 적이 소나무 가지, 손에 닿는 소나무 가지를 하나씩 둘씩 잘라서 가는 대루 눈 위다 죽 났어. 놓구서는 인저 고려장이 들어가서는 저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애, 너 가는 길 잊어먹을 거여. 험디 내가 오메 오메¹³²⁾ 술가지를

잘라서 눈 위다 났시니께 그 술가지를 찾아가면서 가르는 집이 들어갈께다.” 이라더래요. 그러니 그 어머니는 자식 생각을 얼마나 하는 거여. 그라구, 그 손자가 따라가지구서 그 지계를 도루 가지구 왔는디, 그 참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기 죽은 양반의 아들이 하는 얘기가, 파묻힌 양반의 아들이 하는 얘기가 “지계는 그거 뭐하러 갖구 가느냐?” “아 이거 갖다 뒀다가 나두 아버지 인저 연세가 많으시면 지계루 저 와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전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뭐 그때서부터는 고려장이 읊어졌다 그런 전설이 있는 거지, 이제.

【신현리 설화 2】

영인면 신현리 노인회관, 1992. 1. 14. 유주현, 방지선, 박은실 조사.

안창모(남, 68)

효자 유균

그 유균이라구 하는 유씨가 참 아주 굉장한 효자여. 효자효분디.(조사자: 유현요?) 유균. 유균이라는 분이 이렇기 효도를 했는데, 아 인저 자기 두 외아들이여. 근디 아버지는 이미 작고하시고 참 어머니만 이렇기 모시구 있는디, 또 자기두 아들을 또 외아들을 뒀단 말여. 여기서 저 산고랑, 그 고개를 넘어가서 서당이 있는디, 인저 이 한학 배우는 서당이 있는디 애를 글리 서당으루다 인저 한문을 가르키러 보내는 거. 보내믄 갔다가 저녁 때 오구, 매일 같이 그렇기 하는디, 아 이 어머니가 인저 그 학생으로 대믄 그 조모님이 병환이 참 굉장히 깊은 병환이 들었어. 참 백약이 무효고, 굿을 해도 굿턱도 읊고 죽을 지경이거덩. 그래 인저 하루는 대사가 와 가지구서는 시주를 하라고, 지금 중이 해라고 그래서 인저 그 며느리가 좀 넉넉히 시주를, 쌀을 퍼다 주며스리 인사를 하는 거지. 그니께 이 대사가 그 부인의 얼굴을 이렇게 표정을 보니께 굉장한 고심거리가 있는 분이거든. 인제서로 인사작별을 하고서는 이 대사가 가만 생각하니께 그냥 갈 수가 없드랴. 이 주인을 불러가지구서는, “당신이 무슨 그렇기 고민이 있는디, 뭐가 그렇기 근심이나?”고. “근디 약이 참 특이한 약이 있긴 있는디, 구하기가 어렵다.” 대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거덩. 그래 인제 이 부인이 대사 붙들어 가지구서는 “무슨 약이나?”고. 그래 참 대사도 애길 못할만한 입장인 약을 가르켜 준겨. 뭐를 가르켜 줬는고 하니, “당신 아들이 있지 않느냐? 참 서당에 댕기는 아들을, 그 아들을 잡아 가지구선 그 간을 끄내서 시어머니를 메기믄 낫는다.” 이거여.(조사자: 손주요?) 손주 간을 먹어야 낫는다 이거여, 인저. 이? 그러니 참 사람으로서 행하기가 썩 어려운 일 아녀, 그게 이? 아무리 효자효부래두. 그래 인저 그렇기 약을, 약명을 은어 들었어두, 자기 내외간에두 애길 못해여. 혼자만 고민을 하구 있는 거, 인저. 그, 그래지 남편되는 이가 아무리 봐두 자기 인저, 부인 표정이 그전같이 밝지 못하다 이거여. 그래 아무리 참, 자기 어머니가 병석이 누워 있어두 그렇기 그런 표정은 아니였는디 아주 표정이 참 이상해졌다 그런 얘기여. 그러니께 인저 물었어, 남자가 자기 부인 보구서. “당신 참, 고민 끝에 그래서 그런가 어째 더 표정이 아주 이상해졌다.”구 말이지. “뭘 일이 있느냐?” 그렇게시리 이 부인네가 할 수 없이 자기 남편 보구서 애길 했어. 아무개가 잡아를 잡아서 간을 어머니를 드려야 낫는다 그 말이지. “그런 얘기를 들었노라.”구 말이지. 그러니 참 이 남자두 그 자식이 또 있으면 몰르지만 고거 딱 하난디 고걸 잡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 그래 남자도 단언을 못하는 거. 해자 못 해자,¹³³⁾ 인저 말두 못하구 지나가는데 그 어머니 병환은 점점 더 위중해지

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랬어. 하루는 같이 자메시리¹³⁴⁾ “여보.” “왜 그래느냐?” 구 말이지. “우리는 자식을 또 낳을 수 있는 저기니까 부모는 한번 돌아가르는 영 글나는 거고 하니까, 아들을 잡읍시다.” 이거여. 부인이 시켰어, 자기 남편 보구서. 그러니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쉬운 말루다가 며느리가 저런 말을 하느니, 내가 자식으로서 그걸 못한다구 두 못하겠다 그런 얘기여. 그래 인저 서로가 약속을 하구 다짐을 했어. 하자구 말이지. 그럼 저 저녁이, 저녁 때면 저 오잖어. 저 산중 너머 고개를 넘어오느니, 그 고갯거리 가서 지 아버지 지켜 있는 겨, 그 자식이 오기를. 아 참 그 책보를 열이다 끼구서 히적히적 올라오거든. 그래 그 늙을 붙들구선 조금 인저 길이서 후미진 디루 데리구 가가지구. “뭐 할 얘기가 있다.” 구 데리구 가가지구선 그냥 이걸 때려 잡았어, 지 아버지가. 잡어 가지구서는 준비해 가지구 간 칼루다가시리 배를 굶구서는 간을 내 가지구 가서 자기 어머니를 드렸어. 드리니까 아 이 금방 나아, 자기 어머니는. 어머니는 나서 좋은디, 아들은 죽었다 이거여. 그렇게 내외가 다 참 가슴 아픈 일 아녀. 그래 인저 그렇기 행했던 말이기. 이 자식이 인저 죽었으니께 그 이튿날두 안 오는 거 아닌가배. 그 이튿날 안 와, 인저. 근디 이튿째 되던 날, 아 요놈의 자식이 해가 다 갔느니 들어오네! 그렇게 부모덜두 저 죽은 자식이 원혼이 왔나부다 말이지. 가슴이 털썩 내려앉을 거 아닌가배.(청중: 참!) 근디 이놈 눈치를 보구 해두 뭐 표정이 전과 조금두 다른 일이 읊어. 평상시와 똑같으지. 그래 인저 참 저녁을 챙겨든께¹³⁵⁾ 밥두 전처럼 잘 먹구, 전부 쉬운 말루다 시리 이 소변기, 요강이지 인저. 요강두 전처럼 같다 챙겨다 지 할무니 방에 갖다 놓구 씨설어지¹³⁶⁾할 거 다 하구 한단 말여, 이 늙이. 그래 지 부모 내외분은 그걸 보니까 저게 참, 구신은 구신인디 참 그 탄복할 노릇이거든. 그렇게 인저 저녁이 저녁식사를 마치구서는 개를 안방으루 불러 가지구서 “너 사실이 어째 어젠 안 오구서 오늘서 왔느냐?” 말이지. “사실이 이만저만했지 않느냐?” 한께시리 “아니라.”고, “그럼 너 어젠 왜 안 오고, 어서¹³⁷⁾ 자고 이제 왔느냐?” 그렇게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친기가¹³⁸⁾ 들었다. 선생님, 저 아버지 기고가¹³⁹⁾ 돌아서¹⁴⁰⁾ 그래 인저 이 생도들도 여럿일테지만 개가 참 짝이 있으니께 “애 너는, 다른 애들은 다 가고 너는 오늘 저녁이 우리 친지에¹⁴¹⁾ 협조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참 못왔다.”고 그러고매시리¹⁴²⁾ 죄송하다고 일어나서 절을 해거든, 이 늙이. 그거 참 이상하단 말여.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이 아버지가 날이 새기를 저 기대리는 겨. 이 늙이 자는 걸 봐두 전과 같구, 똑같어. 그래 날이 새자마자 그래 새벽같이 그 파문은 흔적은 고대로 있거덩. 이 이상해라. 그러니 이 사람이 가서 그걸 파구 봤어. 파보니까시리 사람을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 몸뚱이만한 동자삼, 인삼, 진짜 인삼이지 인저. 인삼 배를 그어가지구선 속을 파다가 자기 어머니를 메겨가지구 병을 고쳤다이겨. 그렇기 옛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그마만큼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여.

바. 영인면 마을 6 (아산리)

1) 조사일정

1992. 1. 13., 류지원 기록.

조사 첫 날인 13일에는 12시경 천안에서 출발하여 온양으로 와서 중식을 마친 후 오후 1시 30분경 아산군 영인면 아산리 1구에 있는 영인면 노인회관에 도착했다. 미리 연락을 해 둔 탓인지 노인회장을 비롯해 5~6 명의 노인들이 모여있었다. 우리 2조는 선생님들과 함께

노인회관에 남아 그 곳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좋은 구연자를 만나고 싶다는 우리의 청을 받고 노인회장과 총무가 홍종육 씨를 노인회관으로 초대하였다.

홍종육 씨는 <재물이 묻혀 있다는 은골 유래>, <죽어서도 은혜 갚은 결초보은의 내력>, <풍수지탄의 숨은 뜻>, <동티경>, <나랏님도 못 구한 가난> 이야기 등을 청산유수로 풀어 나갔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홍종육 씨 얘기를 듣다가 3시 30분 경 2조 조원들은 선생님과 함께 김옥균 묘와 여민루, 부원군 조대비 비를 답사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개관

【영인면 마을 6】

337-820 충청남도 아산군 영인면 아산리

1992. 1. 13. 전연숙 조사.

영인면 아산리에는 행정기관으로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이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인 중학교와 아산 초등학교가 있다.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으로 총 6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로 농사를 짓고 살며, 종교는 대개 기독교를 믿는다. 서해안 개발로 인하여 마을 중심을 통과하는 도로에는 트럭들이 질주하고 있었고, 옛 장터는 이제 조용히 침묵하고 있고, 개발로 인해 새로운 것과 옛 것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회관에 나오는 노인들은 한결같이 친절하며 감동적이었다.

3) 구연자

【아산리 구연자 1】

영인면 신봉리 1구, 홍종육(洪鍾六), 남, 56.

1992. 1. 13, 황재영 조사.

학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한문 수학을 했으며 농·축산업을 하고 있다. 현지 거주 경력은 3 대째로 윗대는 경기도 김포에서 살다가 할아버지 대에 양반 득세하러 이 곳으로 왔다고 한다. 외모는 얼굴이 많이 야윈 편이고 키는 보통이다. 구연시의 독특한 버릇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입가에 침이 고이고, 가끔 귀를 만진다.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며, 내용에 따라 얼굴 표정이 잘 변하고, 청중의 눈을 맞추며 이야기한다. 한문의 원문을 예로 자주 들고, 한문에 대한 지식은 상당 수준으로 한문 수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이야기를 잘 하는 것 같았고, 자신은 지식층이라 생각하고 있는 듯 했으며, 주위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듯 했다. 거의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았고, 이야기하는 데 아주 열을 올렸다. 하지만 자신의 신상이나 주위의 이야기-옛 은사(최동진)에게 한문을 수학하던 일, 집안 내력, 유명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점 등-로 자주 흐르기도 했다. 이럴 때 노인회장이 꼭 지적을 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되돌려 놓곤 하면, 겸연쩍어 하기도 했다.

조사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려고 준비를 해 두었었으나, 간밤에 일이 있어 미처 자료

를 보고 오지 못해, 이야기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며, 내일 와서 다시 구연하겠다고며 이야기를 끝마쳤다.

4) 설화 자료

【아산리 설화 1】

영인면 아산리 1구 노인회관, 1992. 1. 13. 김동욱, 류지원, 전연숙, 황재영 조사.

홍종욱(남, 56)

재물이 묻혀 있다는 은골의 유래, 죽어서도 은혜 갚은 결초보은의 내력, 풍수지탄의 숨은 뜻, 동티경, 나랏님도 못 구한 가난.

토정 선생이 이 안골이라는 데 살았는데, 이 안골이 여기가 아주군이거든, 이 짝은. 한 때는, 이지함이라는 그 양반이 한 때는 생식을 하시는데 밤이 생, 저 뭐여, 밤, 생을을 켜서 잡썰야 하는데, 그래서 그 부하 직원들은 가지 차력선을 이용해 갓구 어떤 봉오리를 들어오게 해갓구, 돌을 들으론 그 안에서 지네를 잡을라구, 그래서 보름간 은골이라는 데 가서 지네를 잡아오라 해갓구 돌을 들고 보니까, 아 그 수하 부하들이 들고 보니까 거기에 금 한 독, 은 한 독이 들어있어갓구 욕심이 나갓구서는 지네를 안 잡구, 아니 지네만 잡고 도로 눌러 놓고 와갓구, 지네를 드시게 하고 밤, 생을을 켜서 드리야 해는데 그 밤, 생을을 켜서 드린 게 아니라, 버드나무가 하얗고 밤하고 똑같거든. 그래니까 그거를 그거를 생을 켜서¹⁴³⁾ 잡수는 동안에 지네에 독이 올라갓구, 그 생을 낀 것을 잡썰야 그 지네같은 것이 해독이 되는 건데, 애 밤 생을이 아니고 버드나무 생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니까 지네 독으로 인해 갓구서는 이 양반이 돌아가셨단 말이여. 그래 후로다 자기, 자기 수하 토정 선생님 부하들이 가갓구 그 바위를 들으라구 하니까 그 바위를 들지 못해갓구 지금 유래로다가 그냥 이 은골이라고 지내 나고는 있지. 은골이라고.

이 결초보은이라는 것은 맺을 결(結)자, 풀 초(草)자, 갚을 보(報)자, 은혜 은(恩)자거든. 그래 풀을 맺어갓구 은혜를 갚는다는 건데, 그 글귀로만 해가지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들이 MBC, KBS 한다트는 MBC는 M자 들어가니까 문화방송이라고 하는 거고, 코리아방송을 KBS라 하는 거고, 이 그와 똑같으루 4H도 HEAD, HAND, 뭐 ‘H’ 네 개가 들어가는 거와, 술어와 마찬가지로 옛날이두 똑같은 술어다 이거지. 그래 인저 결초보은이라는 것이 살아 생전 갚지 못한 은혜를 죽어, 저승 가서 결초보은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거든. 그러믄 죽어서, 저승 가서 풀을 맺어갓구서는 은혜를 맺는다는 얘기를 그 뭐 사연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지. 근데 의나라¹⁴⁴⁾ 시절에 무지장군이¹⁴⁵⁾ 어느 싸움터로다가 싸움을 하러가다가 하루 주막에 가서 그 쉬는데, 그 잠을 못 이루고 주막 주인 모녀가 밤새도록 울더라는 얘기지. 그래 무지장군이 “아이구, 무슨 사연이 있길래 밤새도록 우시느냐?”고. 그 “우는 사연을 좀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 모녀가 하는 얘기가 “우리 딸이 시집을 가서 한 두 달만에 이, 혼자가 되었는데, 워낙에 용모가 이쁘기 때문에 이 안동네에 김 대감이라는 사람이 소첩으로다가 자꾸 청혼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 딸이 거절을 하고 나도 거절을 했다. ‘도저히 못 가겠다. 수절을 하고 그냥 살겠다.’ 했는데, 저 집이 권

세가 좋으니까 그냥 내일 날 밝으면 열시 정도 되르는 그냥 강제 납치해 가는 날이다. 그래서 모녀 작별 위해 저기 하느냐고 밤새우는 거다. 이게 힘이 약하니 어디 도망가서 살 수도 없고, 천상 내일 날이든 모욕을 당해야 하는데 어티기 할 도리가 없다.” 그래니까 무지 장군이 이튿날 그 안동네 김 대감이라는 사람을 불러갖고 “여보, 당신 전방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든 전방에서는, 왜적이 들어와서 싸움이 나갓구 난리가 났는데, 후방에서는 양반 득세해갓구 호색이나 하구 하면 되겠느냐? 만약에 이 모녀를 우리가 떠난 이후래도 보호 앓고 당신이 자꾸 성가시게 하구 하면 처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하구 간 뒤루다가 김 대감이 죽기는 싫으니까, 그 김 대감이 그냥 모녀를 보호해줬단 말여. 그렇게 했는데 이 모녀들이 우연히 득병해서 죽었어요. 죽고 난 후에 이 싸움이 일, 이년 되는 것이 아니라, 십여 년 경과돼 다시 피싸움을 하고, 전장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어느 모산에 가갓구 포위망이 돼갓구. 무지장군이라는 사람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어차피 이래도 죽구, 저래도 죽으니 한번 최후의 우리가 능력을 발휘 해갓구 적을 쳐보자.” 결사대를 조직해서 치는데, 적이 후퇴하는 대로 풀에 걸려서 죽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참 승전을 했는데 도대체 이 풀을 엮어 놓은 사람들을 알 수가 없단 말여. 풀을 땡겨 놓은 사람들을.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새벽에 잠을 들었는데 그 직속부하 되는 사람하고 둘이 똑같이 꿈을 꿴다는 얘기지. 그 몇 년 전에 만났던 모녀들이 소복을 하고 와서 절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살아서 당신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할 걸 모욕을 안 당했기 때문에 죽어서 혼신들이 당신을 따러 다녔다.”는 얘기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했더니, 은혜 갚을 길이 없는데, 결사대를 조직해 가지구서는 적을 치는디. 우리 둘, 귀신이, 모녀 귀신이 들어 땡기며 풀을 붙들어 땤다.” 그래 잠을 꿴단 마려. 장군도 잠을 깨구, 장군 부하도 잠을 깨구. 잠을 깨구 서루 “아이구,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 장군이 “너 어떻게 꿈을 꿴냐?” 장군이 물으니까 “아 이렇게 꿴습니다. 나도 두 모녀가 나타납니다.” 그래갓구 그때부터 줄래¹⁴⁶⁾ 내려온 것이 살아서 갚지 못한 은혜를 죽어 저승 가서 풀을 땤어 갚겠습니다. 이 말을 다 하자면 너무 술어가 길으니까 결초보은이라 했던 말여.

옛날에 부모상을 당해갓구 우는디, 어떻게 울었는고 하니 ‘수욕정이풍불지’¹⁴⁷⁾하고, 나뭇가지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앓고, ‘자원옥이친불대’¹⁴⁸⁾로다, 자식이 어버이한테 참 효도하고 기다리고 싶어하나 어버이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거지. ‘왕이불래는 연야’¹⁴⁹⁾요, 가고 오지 않는 것은 돌아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풍수지탄’¹⁵⁰⁾이라고 하고, 쉽게 얘기해면은 형제 죽은 디는 ‘팔단지통’¹⁵¹⁾이다. 형제는 ‘우이수족’¹⁵²⁾이라 했거든. 형과 아우. 참 누이동생 이런 사람들은 내 팔과 다리와 똑같다 이거지. 그럼 팔 다리가 부러진다면은 다시 얻을 수가 없다 이거여. 그리고 그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고 하니, ‘내외는 의복이다.’ 이거지, 내외지간이는. 그건 왜? 의복이 떨어지면 다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내가 죽으면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내외는 의복이요, 형제는 수족이라’ 했다구. 근데 지금 세상이 아니라구. 내외가 더 가깝지, 형제지간 보더 말여. 이런 거 등등이 있구…….

‘오작은 서리목에 거상’¹⁵³⁾하고 오작이라는 것은 까마귀 오(烏)자, 까치 작(鵲)자, 까치와 까마귀는 아무 덩불 속에서나 살고, 구리는 굴뚝이나¹⁵⁴⁾ 지령이를 구리라고 하는 거여. 굴뚝이나 지령이는 아무 땅 속에서나 사는데, 그러니까 까치, 까마귀는 이런 나뭇가지 아무 덩불에서나 살고, 굴뚝이와 구리는 아무 땅 속에서나 사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조금 어디

가 헐었다고, 이런 디를 벽같은 디, 변소간을 부신다던지, 헛간을 달아 났다던지 동티났다고 한단 말여. 그래서 앓는다는 거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조금 헐었기루 짐승덜두 아무디서나 살아도 탈이 없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조금 뿔 근디렸기루 무슨 탈이 있는 거냐. 곤명(坤命) 땅 곤(坤)자여. 땅의 명령이다 이거지. ‘곤명 금약 금시’¹⁵⁵⁾에, 오늘 저녁 이 시에 ‘얼렁사파’는 얼른 읊어져라 이런 얘기여. 그거를 스물 한 번 읽어주고 오는 것이 ‘동티정’¹⁵⁶⁾이라 이거지. 일곱 번하고 뿔나무루다가 소두방울¹⁵⁷⁾ 때리고, 또 일곱 번 그러니까 스물 한 번을 때리는 거지. 스물 한 번을 (조사자: 왜 스물 한 번을 때리는 거예요?) 스물 한 번은 인저 스물 한 번 정도 해야 축원이 되는 거 아니냐? 한두 번 해갖구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니까 까치나 까마귀도 아무 데서나 살고, 구렁이나 지렁이도 아무 데서나 사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무슨 병을 금약금시에 빨리 읊어져라. 결국은 앓고 있는 사람에게 축원해 주는 거여. 위로해주는 거여.

옛날에 저 성조대왕¹⁵⁸⁾이 어티기 정치를 잘 하는데 평민복을 하구서 저녁이는 장안 일대를 전부 순행하셨대유. 그래 전부 순행을 하시다가 남산고을이래는 디는 옛날이 배운 사람들, 글깨나 하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데인데, 그 남산고을 한 바퀴를 빅 둘러보니까 어느 창문에서 으술푸시¹⁵⁹⁾ 들리는 말이, 글 읽는 소리를 들린다 이거지. 글이 참, 썩 구성지게 참 들리는데, 그래 얼마나 글을 배운 사람인가 거기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래니까 글을 딱 끝내고 자기 마나님보고 하는 얘기가 “뭘 먹을 것 좀 달라.”고. “시장하니.” 그래 먹을 걸 갖다주니 그걸 먹으며 하는 얘기가 “아이구 우리 성조대왕, 우리 임금님 옆에 있으믄 이것 좀 드릴걸. 맛있단 말여.” 그래 임금님이 배갓티서¹⁶⁰⁾ 들으니까 진짜 뭘를 먹어가며 나를 쫓으면 좋겠다고 하니 아이 궁금중이 나거든. 그래니까 이 양반이 평복을 했으니까 들어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장 계시냐?”고. “내 어디를 가다가 일몰해서 담배 좀 한 대 피고 갈라고 하니 잠깐 들릴 수 있느냐?”구. 그래 가서 인사를 하고 “아 사실은 방금 들오다가 들으니까 그 뭐가 맛있는 걸 잡수길래 우리 임금님 좀 드렸으면 좋겠냐구 했나?”구. “그것 나 좀 조금 주슈.” 그러니까 “아니라구. 시장이 반찬이지 뭐가 그렇게 맛있었느냐?”구. “내가 사실 글만 읽고 생원 노릇만 하다 보니까 조식거리가 별로 없슈.” 말여. “근디 우리 안식구가 어디가서 일을 하구 깨묵 한 덩어이를 은어 왔길래 그 깨묵을 좀 떼어먹으니 그렇게 맛있길래 나 혼자 하는 얘기지 참말로 이 깨묵을 임금님 드리겠습니까? 임금님이 잡수겠습니까?” 말여. “내가 맛있어서 하는 얘기다.” 이거지. “아, 그러시냐?”구. “아 그래두 어디 깨묵 좀 달라.”구 부득부득 우겨 조금 떼먹어 보니 아무 말이 없더라 얘가지. ‘아 이사람 장원 급제나 시켜야겠다.’ 말여. 나라 임금이니까. 주인보고 하는 얘기가 “여보 내 품문에 들으니까 몇 월 며칠 날 과거시험이 있다는데 당신같은 훌륭한 잘 배운 사람이 과거시험 좀 보지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며칠 날 있느냐.”고. 가갖구 바루 정승 판사들¹⁶¹⁾ 보고 이 사람에 아르켜 준 날 과거시험 있으니 과거시험 좀 보게 전국 유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와서 과거시험을 보게 방방곡지¹⁶²⁾에 알렸다 이거지. 그렇게 하구서 이 사람 이름만 오면은 아주 임금님이 시관덜 보고 말여 “무조건 장원급제 시켜라.” 했단 말여. 그랬는데 이 사람 이름이 안 올러오네, 이상스럽게. 그래 저녁에 가갖구서는 그 사람보고 “아 여보, 당신 오늘 왜 과거장에 안 나왔냐?”고. “무슨 집안에 연고가 있었느냐?”고. “나는 과거 시험을 봤는데 낙방했다. 그래 당신을 기뻐했는데 오지 않아 집에 가는 끝에 들렸다.”고. 그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과거시험을 보러 갈라고 하니까 지필묵 살 돈이 없다.”이거지. 지필묵. 그러니까 종이 지

(紙)자, 붓 필(筆)자, 묵 묵(墨)자. 이거 살 돈이 없었다는 얘기지. “하 그래서 못 오신 걸 난 달래¹⁶³⁾ 못 오시는 줄 알았더니 참 딱하다.”고 말여. “난 어차피 떨어졌지만 생원님은 언제 가는 불을 테니 이번이는 장원급제가 없다. 준장원 이런 것만 있다.”고. “몇 월 며칠 날 또 있으니 또 만나자.”고. 지필묵 살 돈을 두두룩히¹⁶⁴⁾ 주고 가셨단 말여. 이 양반이 “이것 가지고 충분할 것 아니냐?”고, “그 안이 짝이라도 팔아서 연명하고 지필묵 사가지고 오시라.”고 말여. 아 그래갖구 그렇게 하고 와서 날짜를 연기 해갖구 또 발표를 한 거여. 아 그랬는디 그 날 또 기다려도 못 오더라 얘가지. 그래 또 쫓아 왔어요, 저녁이. 저녁이 임금님이 또 쫓아와서 “아 당신, 어째 오늘도 못 왔느냐?”고 말여. “아, 말도 마쇼. 왜 오늘 아침이 떠나려고 했더니 우리 내상¹⁶⁵⁾이 토사광란¹⁶⁶⁾으로 금방 죽을라고 하니 과거시험 보느기 대답합니까?”¹⁶⁷⁾ 이거여. “우리 안식구 살리야지, 그래서 의사 불르러 가느라구 못 갔습니다.”이거지. “아, 그러냐구. 그러든 몇 월 며칠 날 또 시험이 있대니 그 날 또 만나자.”구. 그래 그 날 또 만나자구 또 지필묵 살 돈을 또 넉넉히 주고 갔단 말여. 먼저 주고 간 돈은 토사광란 나가지고 의사 다 주고 또 지필묵 살 돈도 없다고 걱정을 하니까 또 주고 갔단 말여. 또 주고 가갖구서 그 날 또 기다리니까 또 안 와요, 이 사람이. 또 과거시험 보러 못 왔드라구. 그 시험 답안지를 죽 글져서¹⁶⁸⁾ 올리는데 보니까 안 올려왔다드라고. 그래 저녁에 또 간 거여. “아 어쩐 일로 못 왔느냐?”고. 그랬더니 “아이. 못 가긴 내가 왜 못 갔으냐구. 과거 글저를 전부 써가지고 올릴라고 하는데 회오리바람이 불러서 훌쩍 날려갔다.”는 얘기여. “그러니까 그랬구나.” 성조대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신은 벼슬을 억지루 줄래두 못 주는 거니까 하여간 나는 여생 돈이나 가지고 실컷 먹구 살게 해주어야겠다.’구. 그래 와갖구서는 인제 그 왕이니까 자기 후하덜한테¹⁶⁹⁾ 시키기를 “그 집에 돈이나 서너 푸대 집어던져 주라.”구. 그래 저녁에 집에 갔다 집어 내벌었거든.¹⁷⁰⁾ 그 이튿날 낮에 거기를 간 거여. 임금님이 좋아서. 평복을 하고. 이 사람이 돈 풀이나 있으니까 얼굴 화색이라도 좋을 거라구. 그래 그 이튿날 가니까 곡소리가 막 나거든. 울구 막 그냥 그 생원이 난리가 났거든. 그래 대문을 두들기면서 “아, 왜 그러시냐?”니께, “어제 저녁 우리 집이 벼락이 떨어졌다.” 말여. “아, 벼락이라니?” 아, 임금님은 다 알거든. 돈벼락이 떨어졌다는 얘가지. ‘아 돈벼락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왜 우냐?’ “그게 아니라 우리 안식구가 소피가 매려워서, 소변이 매려워서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아마 담 모통이로 돌아가는데 돈 보따리에 맞아서 모가지가 부러져 죽었다.”(조사자: 네?) (웃음) 그래서 임금님이 “야,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세상 읍어도 안 된다.” 말여. “벼슬도 팔자에 있는 거고, 가난도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말여.

사. 영인면 마을 7 (월선리)

1) 조사일정

1992. 1. 14., 방지선 기록.

조사 둘째 날인 1월 14일 오전 11시 30분에 숙소를 출발하여 월선리에 위치해 있는 월송 노인회관으로 향하였다. 이 곳에는 많은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노인회관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아늑한 것이 분위기가 참 좋았다. 조사자 중 한 명이 방문한 취지를 설명하자 모든 노인들은 임점필 씨가 이야기 보따리라며 추천해 주었다. 임점필 씨는 <비문 써주고 중국에서 장원급제한 월사>, <이토정의 죽음>, <토정선생의 비결문>, <짐승의 소리를

들어 살인죄를 모면한 정복창>, <자기 수명 10년 깎아 친구 아들 살려준 정복창>, <환난을 알고 남의 집안을 구해 준 정고옥>을 이야기하였다. 다른 노인들은 흥미롭게 잘 들었으나 좀처럼 이야기를 하려 들지 않았고, 도중에 점심준비로 약간 소란스러웠다. 이 곳에서 오후 1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점심을 얻어 먹은 후 신현리 노인회관으로 향하였다.

2) 마을개관

【영인면 마을 7】

337-820 충청남도 아산군 영인면 월선리

1992. 1. 14. 박은실 조사.

월선리는 비교적 작은 마을로 인적이 드물어 보였다. 이전에는 주교리라 불렀던 월선리는 인근의 다른 마을보다 노년층 인구가 많은 편이었다. 도로와 인접해 있는 마을이지만 인근 시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은 상태였고, 전형적인 시골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었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작은 마을이고 다른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지 공공기관이나 학교는 없었다. 전래하는 민속 행사는 얼마 전부터인지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3) 구연자

【월선리 구연자 1】

영인면 월선리, 임점필(林點弼), 남, 82.

1992. 1. 14. 방지선 조사.

백발의 수염에 한복차림을 한 임점필 씨는 9 대째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구연시 담배를 끊이지 않고 피우며 흥분할 때면 바닥을 치며 이야기하기도 했다. 모든 노인들은 이분을 이야기 보따리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점심식사 준비로 다소 소란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이야기는 잘 진행되었다.

제공한 자료로는 <비문 써주고 중국에서 장원 급제한 월사>, <이토정의 죽음>, <토정선생의 비결문>, <짐승의 소리를 들어 살인죄를 모면한 정복창>, <자기 수명 10년 깎아 친구 아들 살려준 정복창>, <환난을 알고 남의 집안을 구해 준 정고옥> 등이 있다.

4) 설화 자료

【월선리 설화 1】

영인면 월선리 노인회관, 1992. 1. 14. 박은실, 방지선, 유주연 조사.

임점필(남, 82)

비문 써주고 중국에서 장원 급제한 월사, 이토정의 죽음, 토정선생의 비결문, 짐승의 소리를 들어 살인죄를 모면한 정복창, 자기 수명 10년 깎아 친구 아들 살려준 정복창, 환난을

옛날에 우리나라 저 연안 이씨에 월사¹⁷¹⁾라는 양반이 계셔(조사자: 월사요?) 월사란 양반 아주 우리나라 명인이셔. 월사란 양반이 중국 사신으루 나갔는데 잉 중국에 제일, 아주 그냥, 아주 저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인 사람들이 한림학사 아주 제일 높은 이였던 말이여. 그런데 그 높은 이가 그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전장에 나가서 전장하다 죽고, 또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웬수를 갚으러 전장에 나갔다가 또 죽었던 말이여.(조사자: 네.) 잉. 그래서 그 인자 그거 뭐여, 그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비를 해 세울라구 비문을 남한테 받아야 하는디, 비문이라는 건 아무리 글이 많고 용해도 자기 조상에 대해서 자손이 못해는 법이여. 한 자도 고치지 못해여. 남이, 남한테 받아야 한만 말이여, 비문을. 그래서 중국에 그 문장이 그렇게 많고 많은 한문 많은 나라에서 글 잘 했다는 사람한테는 전부 저기 모두 와. 모두 와야, 와서 비문을 대야¹⁷²⁾ 맘이 맞질 않아, 하나두. 내 맘이 맞질 않는단 말여. 그래 두 고치질 못한다 말이여. 그래서 우터켜?¹⁷³⁾ 우선 그래서 있다가, 한국서 월사란 양반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신으루, 사신으루 인저 거길 들어가서는 한쪽 방에 있는디, 딴 방에서 있는디, 아 그 뭐시가 한림학사라 그러는 높은 양반이 찾아왔어, 밤에. 그래서 인사를 하구서는 “한 가지 좀 청할, 소청할 말이 있으니 들어가자.”구. “뭘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전장에 나가서 전장을 하다가 전사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웬수를 갚는다고 전장에 나갔다가 또 그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비문을 써야 할 텐디 그 비문을 하나 좀 지어주십소사.” 그래구, 그래 인저 “아, 그러냐?”구. 그래 “비문을 하나 좀 지어주십소사.” 그래 비문을 읽아선, 아 위낙 문장은 문장이었느니께 그 줄줄줄 줄 써서 떡하니, 아 저 읽어 보더니만은, 읽어보더니만은, 아무 소리도 앓고 그냥 간단 말이여. 그래 뭐여, 그 옛날에는 말을 타고 땡기는데, 말이, 말을 몰구 땡기는 마부가 차천뢰라는 이가 있어, 차천뢰. 차천뢰가 마부여.(조사자: 차천뢰요?) 잉, 차천뢰. 마부, 끌구땡기는. 아 저 가만히 보니께 글이 잘못 돼 가지구선 저 양반이 좋다 소리 앓구선 그냥 가버렸어. 시원찮단 말여. 그래서 저기 옛날엔 상전이시, 저 월사란 양반이. “아 저, 선생님께서 글이 좀 잘못 되셔 가지구서는 저 사람이, 저 놈덜이 아마 응 쫓아가서 얘기 좀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건대는 거기에 부사어충¹⁷⁴⁾하고, 자사어효¹⁷⁵⁾란 말이 들어가야만 되는데…….” 아주 나라에 충성을 했었고, 아들은 아버지 웬수를 갚으러 전장에 나가서 죽었으니께 효자란 말이여, 효도. 잉?(조사자: 예.) 부사어충하고, 애비는 효도에 죽고, 저 충성에 죽고(조사자: 예.) 아들은 효도에 죽었다고. 그래서 충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 갔으니께, “애, 니 말이 옳다.” 말이여. “아, 그냥반 오시라구 그래라.” “그래, 뭐냐?” 구. “부사어충하고 자사어효란 말이 거기 안 들어가서 고쳤습시다.” “아, 그럼 인젠 됐다.”구. 그래서 빠져서,(조사자: 아.) 그 말이 빠져서 내가 고칠 수는 없고, 마음에 안 맞으니께 그냥 간단히 말이여. 아, 그래 고쳐줬더니 이 양반이 “이젠 됐다.”구. 회회낙락으로는 좋아서 이렇게 하구선, 아 이 은공을 갚아야 할 텐디, 뭇루 갚을 건지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뭐여, “중국에 요새에 이런 일이 있는디, 그런 일이 있는 걸 얘기 한 마디 내가 하구서 가겠다.”구. “아, 그래 무슨 얘기십니까?” 이 중국에 요새 이 얘기가 비밀 얘기라구(조사자: 예.) 한 사람이 장가를 들어갔는데, 장가 들어가서, 그저 저저 그 아버니가¹⁷⁶⁾ 뭐여, 후행가구 처갓집이서 인저 뭐여, 옛날에 뭐여, 신혼예식이 아니구 옛날 구혼식으루다가,(조사자: 예.) 혼인을 정하구선 신방을 차렸는디, 차리구선 그 이튿날 인저 집이를 말 타구 가마 타구 모두 이러구서는 죽 오는디 집이 가보니께 방에 신랑이 둘이

가 앉았다 이말이여.(조사자: 어머!) 똑같은 사람이.(조사자: 예.) 똑 같해여. 아 그래서 그 아버지두 봐두 어떤 게 내 아들인지 몰르구, 어머니두 봐두 어떤 게 아들인지 몰르구, 친구들, 동네사람들 죄 와서 봐두 어떤 게 어떤 건지, 똑 같으니께, 어떤 게 진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잉. 그래 그걸 물러서는, 하나는 읊어버려야 할 텐디, 어떤 것이든지. 야, 하다하다가 한시꺼서 “애, 저 놈 갖다가 꿈꿈 묶어 동정호에다가 돼지마냥 꿈꿈 묶어다가” 동정호, 동네 동정호라는 큰 뭍시가 있거든, 양자강 같은 강, 갖다 물에다 집어넣었던 말이여. 그게 원아들이여.(조사자: 어머!) (웃음) 아, 물에 텀병 들어가서 빠지니께, 수중에 용궁에서, 용왕이 떡 받아 들여간다 이 말이여. 응 용왕이 떡 받아 들여가 용궁에서. “어, 아참, 인간을 이렇게 대접해 주니 이거 참 대단히 고맙다.”구. 그래구서는, 아 거 용궁에서 사는디, 장가들어서 어 삼 년을 거기서 산단 말이여.(조사자: 예.) 그런디 거기서 인저 그 여자 데리구선 살어서 아들을 하나 낳서 아들이 시살 먹었던 말이여. 앙? (조사자: 네.) 시살 먹었는데, 삼 년째 돼서 말이여. 삼년 째 돼서 아 거 뭐야 마누라되는 아내가, 야 “인저는 인간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이야. 응. “인간으로 도루 나가셔야 합니다.” 아 그런디 큰 께짜을, 이만한 께짜을 하나 주면서는 “이걸 들구 나가시구, 이 애 업구 나가시구, 그래가지구 나가십시오.” 그래 거기서 이별을 해구서는 인간으루 도구 나오는 겨. 나오는디, 아 집이를 떡 와서 어린애를 들구, 업구, 안구 이래구서는 집엘 떡 오니께, 아 그 놈이 대뜸 호령을 지른단 말이여. 응. 아 그러니께 부모네덜이 나오더니 “아, 저 놈 어디서 또 왔다.”구. 그러구서는 야단이거든, 부모네가. 하 그래 이거 큰일났지. 그래서 뭐야. 그 께짜이, 급하걸랑, “이걸, 께짜문을 열으라.”구, 그 용궁에서 그 여자가 그런디 이 말이여. 그래 열어보니께 꿩이가, 큰 개만한 꿩이가 있어. 그렇게 먹었어. 삼 년을 벙여서 큰 거여. 꿩이가 떡 나오더니, 떡 쳐다보더니, 이러구 쳐다보더니 댁다 달겨들어서 앞에 섰던 놈을 물으니께 덜컥 죽어버렸는데 쥐란 말이여.(청중: 쥐?) 쥐. 잉. 야 이게 “인제 내가 그래 원아들이 아닙니까?” 말여. 인저 그제서 과연 큰 아들, 자기 아들이거든, 말이여. 쥐를 알구서¹⁷⁷⁾ 삼 년을 데리구 있었어.(청중: 참!)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떡 해 놓구서, 인저 그 집에서 이 비문 지어준 양반 문장하나 맨들라구 말이여 잉? 조선에, 중국에 아주 제일 가는 문장 맹글라구 그런 얘길 떡 해 줬어. 해주구서는, 며칠 있다가 문장 시험을 본다 하구 중국에서 붙었던 말이여. 가니께 중국에 그 넓은 느무¹⁷⁸⁾ 나라에 글 잘하는 문장들이 좀 많어? 수수만명 죄 모여들었지. 죄 모아 들어서 보니, 글제가 뭐고 하니. 글 짓는 글제가 동정추월야¹⁷⁹⁾에, 동정호 가을 달 밤에, 잉 적어봐. 동정추월야. 동정호 가을 달밤에, 호삼세야¹⁸⁰⁾하고, 세 살 먹은 어린애를 안고, 별대비부인¹⁸¹⁾이라, 대비부인을 이별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그거여. 별대비부인이라, 대비부인을 이별한다 하는 그 문제라구. 야 그러니께 다른 사람은 이느무 게¹⁸²⁾ 무신 소린지 생전 가니 알 도리가 있어야 글을 짓지(조사자: 예.) 거기에 대해서 월사란 양반은 밤에 다 얘기를 해 줬으니께, ‘옳거니! 요건 요령구나.’ 해가지구서는, 아주 문장이 된 양반이여, 월사란 양반이.(조사자: 네.) 여북해서는 말이여, 이런 소리 하기는 뭐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이여, 시어머니가 메느리더러 “삼 년을 데리구서 자구, 그래 잉 쥐두 몰랐느냐?”구. 그런 말이 있다구. 그런 말이 옛날부터 내려 온다구.(청중: 웃음. 쥐두 도섭¹⁸³⁾을 한다구, 도섭을) 잉, “삼 년을 데리구 자구서 켜 줄두 몰랐냐?”구 그랬단 말이여.(조사자: 예.) 그런 일이 있어.

이 토정 선생님이 성내리라구, 안골이라구 있어(조사자: 성내리요?) 잉. 성내리가 아산 궁궐 터여.(조사자: 네.) 거기서 계실 적에 하루는 아전을 아전, 아전이라구 있잖아? 옛날에(조사

자: 예.) 군수 밑에. 그 아전을 하나 데리구서는 구룡산엘 올라가셨단 말이야. 올라가서는 “저 돌 한 번 가운데 떠들어 봐야.” 그래 떠들어 보니까, 아 금이 항아리가, 저 큰 건 아니여, 금이 한 항아리 들었거든. 시 항아리가¹⁸⁴ 또 “애, 저걸 떠들어 봐라.” 아 떠들어보니까 은이 시 항아리가 들었어. 그라구서는 아 이 아전의 관상을 딱 보니까 저 놈이 금방 마음이 변해서 도적이 돼. 아 이거 큰일났거든. 그래서 거기서 금덩어리 시 개를 꺼내서 이 그 아전을 주구서 “너는 이거나 갖구서 다시는 입을 함봉해야지, 누구 천기누설하면 큰일난다.” 구. 그라구선 쫓단 말이여. 쥐 놓구서는 인제 가만히 저 놈의 관상을 보니까(청중: 욕심이 있어.) 욕심이 있어서 그예 도둑놈이여. ‘야 이거 안되겠다.’구. 이 낭반이 혼자 밤에 가서 말이여. 인제 혼자 가서는 그 금 세 독, 은 세 독 세 쪼그만 항아리를 혼자 딴 데 갖다가 파구서 파묻어 버렸어. 혼자 잉. 그런데 이 놈이 인제 아전이, 아전이 말이여(청중: 응. 허.) 그게 욕심이 탐이 나가지구서 말이여.(청중: 그럴 테지.) 탐이 나가지구서는 거 ‘야 조계 내 물건이다.’ (청중: 응.) 아 이거 저 군수 하나만 죽이려는 저거 내 물건 아니냐 이 말이여. 응? 그 때 토정이, 토정이 말이여, 뭘 받느고 하니, 날마다 지네를, 지네를 잡어서 지네 생즙을 해서 자서.¹⁸⁵(청중: 오래 살라구.)지네 생즙. 그런데 그 지네 생즙을 누가 해서 대느냐며는 그 아전이여. 그 중 친한 아전이 날마다 지네 생즙해서 올리구서는 밤, 생울을 해서 올린단 말이여, 밤을 먹어야 그 지네 독을 제하니까 죽질 앓는단 말이여. (청중: 응.) 통신하는¹⁸⁶거여, 그게. 원래 그 토정이란 양반이 통신해서, 신을 통해서 자다 다 같이 얘기하구¹⁸⁷ 그런 양반이거든. 아 그런데 하루는 이놈이, 그 아전이 말이여 ‘야, 지네생즙 해 올리구 내가 밤, 생울만 밤 생울, 생울 올리는 걸 안 하며는 대번에 죽을 꺼 아니냐?’ 이 말이여. ‘그러면 저 물건이 다 내 거다.’ 여기에 욕심이 뻥쳤다 이말이여. 그래서 뭘시를 거 뭘냐? (청중: 밤, 미루나무 생울.) 잉. 미루나무 생울, 미루나무를 깎아서 밤 생울처럼 깎아서 해 났다구. 해 놓구서는 하루는 뭘시를 지네 생즙을…….(이하 녹음불량)

옛날 저, 뭘시기여. 저 비결을¹⁸⁸ 맹길어¹⁸⁹ 놓은 게 있거든.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것을 하자구 그래, 자기 아들한테 전하지 안하구서는 외갓집으루 돌렸어, 그 비결문을.(청중: 이…….) 외갓집. (청중: 토정이.) 외갓집으루 딱 보냈단 말여. 외갓집으루 보냈는디, 옛날이 인제 토정, 토정 선생님이 이 비문¹⁹⁰이라 하니까 세상에 글귀 하나 좀 읽은 사람은 “나두 좀 보자. 너두 좀 보자.” 그래선 계속적으루 이 사람이 보구, 저 사람이 보구 아주 피어서¹⁹¹ 아주 잘 보지 못하게 됐다구, 피어서 종이갓. 그랬는디 거기 뭘고 하니, 뭘라고 그랬는고 하니, 아 이거 참 사람 환장할세. 그게 무슨 소린지 나두 몰라. 뭘여, 뭘여? 이 뭘라고 그랬나? 이 비결문이 이게, 이 원래는, 원래는,(조사자: 원래는…….) 이, 원래는 ‘고무래 밑에 밭이 하나 있는데, 그 밭두둑이 허물어지더니 홀연히 섬 시 개가 생기더라. 그 늑 하나를 시냇물에 담근 이가 누구뇨? 내가 그걸 기다려 나무 한 그루를 심었더니 서쪽을 향해 자라드라.’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어? 이 이게 비결문이여, 이게 비결문. 세상에 알 도리가 있느냐구, 그래.(조사자: 그걸 외갓집 쪽으로 남긴 거예요?) 응? (조사자: 그걸 남긴 거냐구요?) 그게, 그래 토정 선생님이 그렇기 비결문을 해 가지구서는 말여. 그렇기 그런 말이 인제 거기 신문에 보니까 그 진군이¹⁹² 어째서 그러한고 하니 이야기 하문 나와. 야, 한 사람이 말여. ‘야, 이 토정 선생님의 비결이 아무개네 집이 있다는디 나두 좀 그것을 은어서 봐야겠다.’구 찾아와서는 “아, 자네네 집이 그 토정선생님이 그 비결문 있다구들 그러니 자네 꺼 좀 보자.” 그러니까 “있긴 있는디, 이 무슨 말인지 누가 아냐?” “나 좀 어디 보세.”

아 갖다 뵈단 말여. 그라구 보니까 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더니 서쪽을 향해 자라드라.’ 이게 ‘보물이, 은금보화 덩어리가 이 남구 밑이¹⁹³⁾ 파묻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야, 어튼 동네든지 가르는 일목리라는 동네가 있을 것이다. 내 그느므 거를 한번 알아 볼 거다.’ 그래선 이게 미친 놈마냥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 동네 이름이 뭐냐?”구, “저 동네 이름이 뭐냐?”구 해서 밤낮 다니며 물어보니까 한 군델 갔드니 큰 고목나무가, 고목나무가 동네 앞이 있는디 거기 가서, “이 동네 이름이 뭐니까?” 하니께, “이 동네가 옛날 옛날에 저 동네 앞이다가 고목나무, 나무 하나를 심어 놓구서는 일목리라구 그런다.”구. 응? “옳다, 됐다. 이젠 여기 됐다.” 그 동네 들어가서는 연장을, 곡괭이를 얻어가지구선 고목나무 밑구녕을 봤어. 파구서 한 번 파구 두 번째 찍으니까, 꼬꾸라져 고 자리서 죽어 버렸다구. 그게 누군고 하니, 박, 박, 아고 박 뒤편이여, 아고, 그거까지 났더라구, 저 신문에. 박, 밀양 박씨여. 밀양 박씨에 박영(), 뒤편이 아이 모르겠어, 그건. 그래서 박 뒤편이여, 거건. 잘 모르겠네. 박 뒤편이냐. 그래서 그 무슨 말인지 아느냐구. 원래는 ‘고무래 밑에 밭이 있는데.’ 그저 풀어봐야 알아. 원래는 ‘고무래 밑에 밭이 있는데, 에 밭두둑이 허물어지더니 이 홀연히 섬 시 개가 생기더라.’ 별안간 말이지. ‘섬 하나를 시냇물에 담근 이가 누구뇨. 내 그를 기다려 어, 그를 기다려 나무 한 그루를 심었더니 서쪽을 향해 자라드라.’ 그거여.(청중: 그게 일목리가 맞는 거?) 누가 아느냐 말여. 그런 일이 있더라구.(조사자: 그럼 그 뜻은, 확실한 뜻은 각자 추측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박 뒤편이한테 이름이 백날 들었는데두 안 나오네. 박 뒤편이는 그 일목리 밑이 금시령 은시령이 갖다가 토정 선생이 거기다 파묻은 줄 알고 그렇기 풀었던 말여.(청중: 제우 죽으려구 갔구만.) 이 제우 죽으려구 갔어.

이 양반이 말여. 성제분인디¹⁹⁴⁾, 성제분인디. 정북창¹⁹⁵⁾ 호가 북창이여. 그라구 또 저기는 이름자, 뒷자는 저 숫돌 염(礪)자여, 숫돌염자. 염자여. 근디 이 양반이 도통을 하서가지구서 짐승의 소리두.(청중: 그래서 우리는 저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짓말이라구 그러는 거. 사람이 저 새소리, 짐승소리를 어떡기 듣느냐?) 근디 하루는 성제분이 어디를 가느라구 산길을 가는데 혈가 속에서¹⁹⁶⁾ 가무개가¹⁹⁷⁾ ‘까옥까옥’ 하거든. 우리네가 들을 땐 ‘까옥까옥’하지만 그 양반이 들으론 그게 아니란 말여. 응? ‘다식, 다식’ 한단 말여. 야, 그 형님이 말여, 동생 아우님보구 그러. “야, 저기 ‘다식, 다식’ 가무개가 먹을 게 많다구 그러는디.” 많을 다(多)자, 먹을 식(食)자거든. “‘다식, 다식’ 먹을 게 많더라니 뭐가 있나 좀 가보자.” 그 소가¹⁹⁸⁾ 속을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죽었던 말여. 그러니까 먹을 게 많다구 가무개가 ‘까옥, 다식 다식’ 한 거. 우리네가 들을 때는 ‘까옥까옥’하지만. “저 가무개가 먹는 걸 그냥 보구서 갈 순 없으니, 야, 우리가 저 동네에 들어가서 연장을 은어서 땅을 파구서 가무개가 파먹지 않도록 묻구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인저 동네 가서는 연장을 은어 가지구서는 두 분이 땅을 파구서는 묻을라구 그라는데, 아, 도둑놈 잡으러 다니는 포도¹⁹⁹⁾, 포도한테 잡혔단 말여. 들켰어. 그러니까 살인죄로 몰리지. 이 사람, 죽여서 파묻은 거라구. 그래 꼼짝 못 하구서는 인저 고랑을 차구서는 뒤편, 옛날엔 군수가 사람을 죽이구 살리구 하는 걸 다 맡아 가지그한다구. 지금은 저 검찰·판사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마을 군수가 생살권,²⁰⁰⁾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다 맡아 가지구 했어.(청중: 원님이라구 그랬어, 원님.) 원님. (청중: 이 생살권을 다 가졌어, 살릴 수도 있구 죽일 수도 있구.) 그래 갖다가, 옥간에 갖다가 가뒤편. 그 인저 옛날에 살인자는, 사람만 죽었으면 그 사람두 죽어야 한단 말여. 죽인단 말여. 그 때가 한

사월 오월쯤 됐든지 간에 그 군수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없구, 증말 짐승의 소리를 알아 듣는다구 그러니 짐승, 새짐승 소리를 알아 듣는다구 하는 사람은 고금에 처음 들어 본다 이거여. 그것말이나, 참말이나. 내가 시험을 한 번 해 봐야겠다. 그래 오월달이 지비가²⁰¹⁾ 그 돌루다가 집을 짓구서는, 새끼를 까구서는 인저 두 마리가 물어다 메기는다,²⁰²⁾ 하루는 남모르게 그냥 제비 새끼 하나를 탁 끄네다²⁰³⁾ 감췄어. 아 제비가 메기구, 새끼 메길 것을 물어와서 보니까 한 마리가 읊단 말여. 두 마리가 짓으구, 난리가 났거든. 이? 그러니까 그 군수가 아전더러, 이방들더러 “너 그, 저 아무개, 아무개 가둔 사람들 데려오너라.” 퍼뜩 데려왔단 말여. “그라, 니가 새 짐승 소리를 알아 듣는다니 지비가 건궁중에서 저 짓어내디. 저거 무슨 이치냐?” 아, 예. ‘피불용 골불용 육불식’²⁰⁴⁾하니, 가죽도 못 쓰구, 뼈도 못 쓰구, 고기두 못 먹으니. ‘속출’²⁰⁵⁾ 하십쇼. 속히 내놓으라구 합니다“ 어떠여? 응?(청중: 한자두 새겨줘야 알지.) ‘피불용 골불용’ 가죽구 못 쓰구, 뼈두 못 쓰구. ‘육불식’ 피기두 못 먹는단 말여. ‘속출’하십쇼, 속히 내놓으라 합니다. 하 이거 참 기가 맥히거든, 군수가 보니까. 증말루 당신이 혼자 갖다 감춘 거를 죄 안단 말이어. 야, 증말 묘한 양반이 나오셨다구. 그 그런 일이 있구…….

또 한번은 말여, 정북창이란 양반이 재주가 보통인 양반이 아니여. 사람들 병 알아두 말이지. 무슨 병인지 알아. 손으루 만지기만 하믄 다 나아버려. 응? 그런데 하루는 친한 친구가, 아주 그 중 절친한 친구가, 아들이 외아들인디 그 아들이 앓아서 죽게 됐거든. 죽게 돼서는 백약이 무효여.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두 소용없단 말여. 죽게 됐어.(청중: 삼대독자였다.) 그런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 친구 북창을 찾아 갔단 말여. “여보게, 외아들 둔 것이 내 자식이 지금 백약이 무효여. 아무리 약을 써두 안 되구 다 죽어 가니 자네가 좀 고쳐주게.” “자네 아들 명이 그만인 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명이 그만인 걸.” “이 사람아, 자네가 하나밖에 고칠 사람이 없으니 자네가 와서 고쳐줘, 고쳐줘.” 자꾸 졸르니까, “야, 내가 그러믄 자네가 증²⁰⁶⁾ 나를 가지구서 고쳐 달라구 그러니 나로선 고칠 재주가 읊어. 그러니까 내 말을 꼭 듣게 들을라느냐, 안 들을라느냐?” “꼭 듣겠다.”구 그러거든. “그러면 나 시키는 대로 꼭 해여. 내가 나를 십 년을 들 살구 자네 아들 십 년을 내가 더 살게 해 줄테니, 이?” 그런 양반이여. “내 나를, 나가 십 년을 내가 깎아가지구 자네 아들 십 년을 더 살게 해 줄 테니, 내 말대로 꼭 해라.” 그럼 어떡하느냐? 서울 남산에 지금은 인구가 많어가 지구서는 화려하게 해 났지만 옛날엔 남산이 순 나무만 산에 무성하단 말여.(청중: 호랭이…….) 근디, 아 보니까 달이 환하게 밝은디, 자네가 혼자 가야혀. 사람 하나두 데리구가지 말구, 혼자 응?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르는 노인방반들 둘이 장기를 두구 있을 것이다. 장기를 두구 있는디, 불문곡직하구 가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구서 ‘그저 제 자식을 좀 살려 주십소사’하믄 본체두 안 할 거시다, 그 낭반들이. 그래 너, 그래 자꾸만 졸러. 졸르믄, ‘아,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니, 우리가 땡기다가 다리가 아퍼서 심심해서 장기 좀 두구 있는디 우리가 뭘 안다구 병을 고쳐 달라구 그러느냐?’구. 그 낭반들이 그러실꺼다.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자꾸 앉아서 졸러. 졸르믄 나중이는 단장막대기루다가 대가릴 막 후려 갈길 겨. 아프다구 내빼지 말구서 그냥 엎드려서 굴복하구선 자꾸 졸라라. “그럼 그러한다.” 아, 혼자 인저 참 솔밭속에를 캄캄한디 남산 꼭대기를 올라가니까. 달이 환하게 밝은디 올라가니까 아 과연 아닌게 아니라 노인네들이 둘이 앉아서 장기를 두구 있단 말여. ‘아, 참 용하긴 용한 사람이로구나, 용하구나.’ 그러구선 코가 땅에 닿게 절을 했다. 절을 하구서

는 “그저 제 자식이 지금 위독해서 백약이 무효니 그저 선생님들이 살려 주십시오.” 들은 체두 안 하두 장기만 둔단 말여. 그저 자꾸 앉어 졸르는 겨. 졸르니께 “아 우리넨 아무 것두 모르는 사람이유. 아무 것두 모르는 사람이니, 이 땡기다가 다리가 아퍼서 장기 즈 두구 있는거라구. 우리가 뭘 안다구 우리더러 그런 병을 고쳐 달라구 그러느냐?” 그라거나 말거나 자꾸 앉아서 졸렸어. 아, 나중이는 “히, 이거 우린 아무 것두 모른다는디 이거 어쩔 일루 미틴 놈이 와 가지구 이러느냐?”구 단장막대기루다, 지팽이루다가 대가릴 막 후려 갈긴단 말여. 아퍼두 아프다 소리 못하구서 그냥 때리든 때리는 대루 맞구서는, 그저 굴복하구 엎드려 가지구 “그저 살려주십시오.”하 그러니께 이 낭반들이 하는 소리가 “요게 ……” 정복창이란 양반이 이름이, 이름자가 염자가 숯돌 염자여, “요게 정염의 짓인다…….” 이?(조사자: 네.) 다른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시켰단 말여. “정염의 짓인다.” 인저 내려가라. 그 와보니께 병은 벌써 낫어. 다 죽어가든 사람이 금방 낫다구. 아, 그 이튿날 인저 북창을 찾아갔어. 북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는 그런 사실을 얘기를 들어야 해니께 이젠 내가 메라드라, “자네 나이 십 년을 깎아서 내, 우리 아들 십 년 살게 댔다구.” 그 낭반한테 다 얘기하구. 그런디, 그 때 참 빼 났네. 그 때 그럭하구선 내려가라구 할 적에 보니께 금방 내²⁰⁷⁾ 읊어. 아무 것두 읊어. 신이란 말여, 신.

또 하루는 말여. 성제분이²⁰⁸⁾ 또 어디를 가느라구 가니께(청중: 살인죄는 나왔구?) 잉? (청중: 살인죄루 나왔구?) 나왔지. 나왔지. 나왔다구 안 그랬어, 아까? 나왔지. 이 천하만물을 그 낭반들은, 형제분들은 환하게 제 아는 분들이여. 그냥 모두(청중: 아, 형제분들이 다 그랬어?) 그러, 둘이여. (청중: 둘이 다?) 그러. 보옥²⁰⁹⁾이라는 양반은 보옥이라는 이름자가 잡사찰,²¹⁰⁾ 착자여. 아, 그 또 동생이 “형님.” “왜 그러?” “아, 저기 저 집이 큰 재난이 있다구. 큰일 날 겁니다.” “아, 그 집 가운²¹¹⁾인걸 어떡해?” “아, 그 집 가운데 걸 어떡해. 난 갈테니까 아우가 가서 환란 즈 면해 주구 와.” “아, 그렇게 해야 것이유.” 그래서 인제 형님은 가구 혼자 인제 그 집에 찾아갔어. 찾아가서 주인을 찾아서 “난 여기 땡기는 과객입니다. 과객인다, 하룻밤 즈 묵어가야겠습니다.” 그래 사랑으루 들어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녁 때 왜서 저녁을 먹구 밤에 인제 보옥이란 양반이 “내가 댁이 인저 온 거는 다름이 아니라 댁이 큰 환란거리가 있어서 그 화란을 면해줄까 하구서 왔는디, 말을 들으실랍니까?” 그런다 이 말이여. 아 이거, “아, 그 무슨 원리냐?”구. “아 글썄, 꼭 들으신다든 얘기하고 안 들으신다든 안 하겠습니다.” 아, 아주 큰일 났거든. 큰 환란이라니, 보통 환란이 아니란 말여. 그래 내가²¹²⁾ 한참 생각하드니 “아, 듣것노라.”구 한단 말여. “그러든 내 아침이 일찍 깨서 텃밭이 밭 가운데 갖다가 쌓아 놓으십쇼.” “그리하겠노라.”구. 그래 이 장작을 일찍 일어나서 일꾼 시켜서 장작, 잔뜩 해논 장작을 거기다 수북하게 쌓아놔지. 거기다 갖다 났단 말여. 그 지름²¹³⁾ 즈, 옛날이 들지름, 옛날에 들기름밖에 더 있어? 들기름. 기름 즈.(청중: 쟁기름두 있었어.) 그 들기름을 구해서, 몇 사발 구해다가 거기다 끼얹었어. 거기다 끼얹었는데 거기다 불을 확 질르는 겨. 이거 미친 늑. 누가 보든 미쳤다구 그러지. 아무 것도 없는디 장작에다 불을 놔 버리네.(청중: 그러.) 아, 불을 놓은 뒤, 화광이 충천하는데 이런 빌어먹을 놈. 늦게 늦게 한 욱 십여 세 가서 아들 하나 나서 일곱살쟁이 먹여가지구 체우²¹⁴⁾ 독선생 농구서 데려다, 독선생 농구서 글 가르치는 아들을 버쩍 끌어다가 불 속에다 집어 처는네.²¹⁵⁾ 저거 어떡해야 옳아 그래 이? 아 누가. 그런게 “이늑, 미친 늑을 자식 죽인다.”구. “꽤 죽인다.”구 안 그럴꺼유? 아 몽둥이 들구 동네 사람들이 꽤죽일려구 하니께 가

만있게 “가마시라.”²¹⁶⁾구, “가마시라”구. 맞아 죽어두 “가마시있으라.”구 그라구 있는다. 그 불 속이서 냅다, 죽어서, 죽으려구 인저 그러니께 어 이것만한 구렁이가 비비 틀어 가지구 서는 죽어 버린다 이 말이여. “아, 이게 그 대감 아들입니까?” 말여. 아이고, 기가 막히거든, 이?(청중: 그 집안 아주(녹음 불량)) 그렇지. 아 기가 맥힌단 말여. 이? 죽어서 구렁이여. 그 래 다 탄 뒤에 일꾼 시켜서 물 즈 닭구²¹⁷⁾ 떠오라구, 물 즈 떠오라구, 불을 다 꺼버린단 말 여. 다, 제²¹⁸⁾ 꺼 놓구서는 모지란히,²¹⁹⁾ 혼자 앉어선 말여. 그 인저 탄 솥을 말이지. 모자니 ²²⁰⁾ 굶어내가문서는 뭘 찾아, 보옥이란 양반이. 아 찾더니마는 요런 깔구리²²¹⁾ 하나 쇠 하나 를 가지구서 “이제 찾았다.”구 하구선 이 양반이 가지구 나오거든. 가지구 나와서 그 대감, 주인 영감님더러 말여. “대감이 구렁이를 작살루다가 찍어 죽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청중: 아하.) 응? “그랬네. 과연 그랬네. 내가 연못을 파구서 거길 양어를 하느디,²²²⁾ 아 이것만한 먹구렁이가 큰 괴기²²³⁾를 제 잡아먹어서 하두 분해서는 그 밤장어²²⁴⁾ 잡는 작살을 맨들어 가지구서는 그 늪을 갖다 꼭 찍었더니만 이 늪이 꼭 미끌어져,²²⁵⁾ 확 미끌어졌다네.” 그 래 그 늪을 맞추서 그 늪이 죽었다구 그러더니마는 일꾼을 시켜서 그 저 광이,²²⁶⁾ 뭘여 그 작 살 그, 그것 즈 내오느라 그거여. 그 작살, 그 하나 저 부러진 늪을 내와서 고걸 맞추니 꼭 맞거든. 그런 일두 있다구. 그 얼마나 용해여.

아. 영인면 마을 8 (창용리)

1) 조사일정

1992. 1. 14., 황재영 기록.

조사자들이 창용 3구 창용 노인회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는 5명 정도의 노인들이 있었으나, 이야기를 서로 미루기만 하고 잘 하려 하질 않았다. 그리고 도와주고는(애기를 하고) 싶지 만 이 곳은 새로 생긴 마을이라 옛 이야기나 전설이 없다고 하면서 아쉬워했다. 조사자들이 도착한 때가 점심식사 때이어서 노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노인들도 별 할 얘기가 없는 듯, 이야기를 할 분위기 조성이 안 되었다.

2) 마을개관

【영인면 마을 8】

337-820 충청남도 아산군 영인면 창용리

1992. 1. 14. 권민정 조사.

창용리는 개척한 마을이라서 자연부락 이름도 없고, 마을 사람들의 마을에 대한 애착심도 없는 것 같다. 총 100세대가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다. 쌀맛이 최고라고 자랑을 많이 한다. 전반적으로 생활 정도는 마을 사람 스스로가 영인면에서는 가장 부유하다고 자부하고 있다. 종교는 기독교를 대부분 믿고 있으며, 남녀별로는 여자가 약간 더 많고, 연령별로는 노인층이 더 많다. 마을이 활기차고 인심 좋은 것이 아니라, 가라앉은 듯한 분위기로 마을 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한 인상이었다.

3) 구연자

【창용리 구연자 1】

영인면 신봉리 2구, 조중원(趙重元), 남, 73.

1992. 1. 14, 황재영 조사.

전에는 예산에서 거주했고, 30년 전에 이 곳으로 이주했다. 학력은 없고 현재 직업은 농업이다. 구연 자료는 <4월 당개, 5월 망개>, <개척단 유래>, <재난 막은 줄다리기>인데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라 한다.

4) 설화 자료

【창용리 설화 1】

영인면 창용리 경로당, 1992. 1. 14. 전연숙, 권민정, 황재영 조사.

조중원(남, 73)

4월 당개 5월 망개, 개척단 유래, 재난 막은 줄다리기.

산비탈 어디 백포장²²⁷⁾을 치고, 아주 뒤, 굉장히 푸짐 했다고. 근데 사흘만 지나면 싹 걷어치니깐 오월은 망개지.(웃음) (조사자: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청중: 강다리²²⁸⁾라는 게 사월 달에 나오고 말거든) 강다리라는 게 사월 달에 나오고 마니깐, 강다리라는 생선 종류여. 근데, 강다리라는 그 생선이 전국이 다 나는 게 아니라 요기만 왔다는 거. 요기 요기만 와 저 강다리라는 것은 지금 삽교천, 삽교천 이 위로 해서 저쪽, 저 사발포로 글구, 요기로, 요요두방만해서²²⁹⁾ 갈라지,²³⁰⁾ 갯도랑이 이렇게 와가꾸 이렇게 갈라졌잖아. 저쪽으로 가구 이쪽으로 가구 삽교천으로 가구 일루 오는데, 요기만 나지 다른 텐 안나, 그 놈의 게.(조사자: 사월에만 난다구요?) 사월에만 나.(청중: 승어도 사월에만 나는 거 아냐?) 같이 오는 거지. 그런데 오월 달이 되면 싹 없어지니깐 다 파하는 거지. 오월은 망개지. 사월은, 사월은 아주 당개, 당개하고 쫓아 오는 거구, 오월은 망개지.²³¹⁾ (청중: 아니 뭐, 여기 백포장…….) 음, 산별²³²⁾에선 아주 백포장이 천지였지.

수용소로 들어가지구 지내는데, 수용소로 들어가갸구 인제 배급을 줘갸구 살았거든, 난민들이. 근디 배급만 먹을 게 아니라 이 갯벌을 막아가지구선 농사 쳐서 먹으라구 막았는데 그때, 가물어서 잘 못 먹었서유. 그 때 박 대통령이 저 아산만 막구나서 이제 물도 좋구 그래 갓구 지금은 살게 됐지. (청중: 그러니깐 이제 본래는 여기가 갯바닥이 됐거든. 갯바닥이 됐는데, 여기에 피난민들이 와가지구서 이를테면 개펄을 막기 시작해서 우리, 우리가 온 지 한 이십 년 됐는데, 그 때까지만 해더라도 여기가 물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하튼 이전할 때가 되지 못 했거던. 그 땐, 그때만 하더라도 땅 삼백여 평, 한 사백 평에 , 애기 들으니깐 막걸리 한 병씩에 바꿔 준다고 그러더구만, 그러다가서 저게 아산만이 막히면서 옥토가 됐지. 시방 이게 전부가 그래 되갸구선 여기가 사람이 살게 되구 좀 이만침 발전이 되갸구선 (조사자: 새로 개척된 마을이라서.) 그래, 그래서 개척단이여. 요 도성리도 개척단이라고 하지. 거기는 농토가 많았었서유.

재난을 예방한다구 그래서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근데 정월 보름끼며는²³³⁾ 이제 아주 돌아다니며 참, 농악이라 하구 풍물이라 하느디, 동네 청년들이 나서서 풍물을 사가지구선 줄다리느 비용을 거둬. 돌아 당겨. 그래갖구선 정월 대보름 날 줄을 다리느디 인저 여자하구 애들하구 한 편허구, 남자 한 편허구 이렇게 다렸다구(청중: 그게 남자한테 견디나?) 근데, 질 때도 있구 이길 때두 있구 그러.(청중: 그렇게두 되구, 저렇게도 되구.) 예. 근디 여자 한 편하구 애들하구, 남자들 인제 한 15세 이상이면 남자편으로 서구, 이렇게 해서 동네 동네 그렇게 다녔어유, 그전엔. 그렇게 해가꾸 그 뭐 수 백 명이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줄이 그게 낙지 꼬리 같으지. 처음에 꼬다리²³⁴⁾는 이렇게(두 손의 등을 서로 맞대며)해서 맞대고서 그래가꾸 다니구선, 술 먹구, 참, 농악 치래면 놀구. 그러면²³⁵⁾ 묶어다가 저기다 놓고 불사르구²³⁶⁾ 그런데. (웃음) 두어 번 구경했서유.

1) 한 이가 : 한 사람이

2) 지가설 : 地家說.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

3) 시럽다 : 스럽다

4) 금시발복 : 今時發福. 즉시 복을 받게 되는 명당 자리.

5) 탁록 : ‘발복(發福)’을 의미하는 듯함.

6) 쇠 : 나침반(묘 자리를 가릴 때 쓰는 도구)

7) 팔년병화 : 八年兵火(8 년 간에 걸친 전쟁이라는 뜻)

8) 배내 : 지명이 듯함.

9) 그지가 : 거지가

10) 내워서 : 내외가

11) 아무 때 : 아무 데.

12) 미친 놈이던지 : 미친 놈이라고 하던지

13) 나물 : 나무를

14) 제 : 죄, 모두.

15) 장인들 : 재인(宰人: 백정)들

16) 사람 : 사랑방, 사랑채

17) 경도 하고 : 경도 읽고

18) 낫차를 : 낫지를

19) 독삼경 : 서당의 교재를 말하는 듯. 사서삼경?

20) 판 디를 : 판 테를, 다른 곳을.

21) 어명이거든 : 엄명이거든

22) 없으니께 : (공장 같은 곳이) 없으니까.

23) 소동이 : 小童(나이 어린 아이)이

24) 구라구서 : 그렇게 하고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25) 궁글리던 : 넘어뜨려 굴리던

26) 싸게 : 빨리, 바빠.

27) 비비적대서 : 빗대서, 비유적으로

28) 아주, 한테 : 모두 지명인 듯함.

29) 한테 : 한 곳에

30) 모대 : 모여

31) 멍청이지

32) 으특하냐구 : 어떻게 하느냐구

33) 태기루다가 : 태(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새를 쫓는 도구. 짚으로 고아 만듦)로다가

34) 태렸어 : 움푹 패어 들어간 땅구렁에다가 태질을 했다는 말.

35) 피우든지 : 펴든지

36) 했다구 : 일이 힘들지 않아서 누구나 할 수 있었다는 뜻

37) 여며쥐구 : 거머쥐고

38) 메라구 : 뭐라고(잔소리를 한다는 뜻)

39) 낭구를 : 나무를

40) 올감이 : 올가미(새나 짐승을 잡는 장치)

41) 나뭇대기루다 : 나무 막대기로

42) 미르뺑해다 : 뭇뺑을 해가지고

43) 그런 거 : 정자관(程子冠)을 말함

44) 사구라 단장에다가 : 벚나무로 만든 짧은 지팡이에다가

45) 한껏 : 한껏

46) 월부하고의 : 달과의

47) 어이들 : 어서들

48) 어짼 이가 : 어떤 이가

49) 달기머리 : ‘닭의 머리’라는 뜻.

50) 후원강사 : 지명인 듯하나 미상

51) 구한국 : 舊韓國. 여기서는 삼한시대를 말함.

52) 어한이, 포한이, 염한이 : 어한(漁韓 : 고기잡이 하는 사람), 포한(浦韓 : 포구에 사는 촌사람), 염한(鹽韓 : 소금을 굽는 사람). 어떤 이가 자신이 삼한갑족(三韓甲族)이라고 자랑하니까 三韓을 三漠이라고 하여 놀려 주었다는 말.

53) 어티기 : 어떻게

54) 여가 : 여기가

55) 뿔기 전에 : 막기 전에

56) 놀았어요 : 신기루가 나타났다는 것을 여기서는 ‘영 놀았다’라고 함.

57) 여기서 끼어 든 청중이 양승호 씨이다. 양승호 씨의 구연은 별도로 채록하였음.

58) 고지를 영 안 듣네 : 영 끝이 듣지 않네.

59) 자오상반 : 子午相半(子時와 午時가 서로 하루 24시간의 반, 곧 각각 밥 12시와 낮 12시가 됨)

60) 짝꾸가 : 자국이. 흔적이

61) 한치 : 함께. 같이.

62) 세 야씩 : 세 개씩

63) 꼬냉이 : 끈

64) 낭중이 : 나중에

65) 증리 : 정리

66) 말 발작하고 : 말 발자국하고

67) 장승 : 장성(將星)

68) 잘코박에 : 잘코사니(남의 불행에 고소해 하는 말)

69) 동토함이던지 : 동티가 났던 것인지

70) 주매 : 주면서

71) 원 : 원님. 사또

72) 동원마루 : 동헌(東軒 - 고을 사또가 집무하는 곳) 마당

73) 보날께 : 보니까

74) 대덕보 : 대들보

75) 동원지사 : 동헌지사(東軒之舍)

76) 지주 : 지조도

77) 고문좌석들끼리 : 지위가 높은 사람들끼리

78) 악행 : 악형(惡刑:몹시 심한 형벌)

79) 임백호 : 백호(白湖) 임제(林悌, 1549 ~ 1587)

80) 청량 : 정량(정량:조선조 때 육조의 정5품 벼슬)

81) 고관대작(高官大爵)

82) 호풍하고 : 호탕하고

83) 서울다가 : 서울에다가

84) 백죽날 : 백중날(음력 7월 보름)

85) 봉로방 : 봉긋방(주막집에 딸려 있어서 나그네가 숙박하는 방)

86) 드림뱅이 : 더럽뱅이. 행색이 더러운 사람

87) 그꾸서 바꿔 달라구 : 의복 등을 바꿔 입자고 했다는 말.

88) 들럼 : 덜렁

89) 졸라와서는 : 좇아와서는

90) 쥬일 : 종일

91) 헛청 : 헛간이라도

92) 횡청 : 휘영청

93) 백창에 회황월하니 : 백창(白窓)에 휘황월(暉煌月)하니

94) 헌종태고풍 : 軒踪太古風

95) 그지들을 : 거지들을

96) 금금은 수소구고 : 금금(錦衾)은 수소구(誰所俱)요

97) 객치이루금이다 : 객침일우공(客枕一隅空)이라

98) 벽의 : 베개의

99) 누는 : 누대 (樓臺)는

100) 인군: 임금

101) 不事二君

102) 不更二夫

103) 이성계를 임금 자리에 나가라고 한 사람은 황희라는 말.

104) 이를. 사람을

105) 이성계가 황희에게 주는 것을 받지 않았다는 말.

106) 생즙을

107) 이 바위를

108) 세 독근에 : 세 독에

109) 군수동이 아니고 : 아산(牙山)은 군수(郡守)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현령(縣令)이 다스리는 고을이라는 말.

110) 골사리가 : 골짜기가. 동네가

111) 군으로 : 郡으로

112) 골로 불렀단 말이여 : 그 당시는 「郡」을 ‘골’로 불렀다는 말.

113) 수박밭이나 참외밭에 원두막을 지어놓고 지켰다는 말

114) 깨우도 : 아직도?

115) 화 : 환하게 떠서

116) 무서 : 무서워서

117) 썩는

118) 곡괭이

119) 정구공이

120) 절구공이가

121) 밑구녕에 : 아래에

122) 비지도 : 베지도

123) 벼서 : 베어서

124) 목살동티를 떼야 한다는 말

125) 한교가 : 향교(鄕校)가

126) 뽕거뵈어 : 뽕겨 뽕았어

127) 당장같이 : 담장같이. 담같이

128) 벼쩍히 : 변쩍

129) 판 디를 : 다른 테를

130) 生栗. 날밤

131) 오동지선달 : 오동지육선달(五冬至六선달: 동지. 선달에 눈 내린 양으로 보아 다음 해 5, 6월에 올 비의 양을 알 수 있다는 데서 온 말). 한 겨울을 이르는 말.

132) 오메 오메 : 오며 오며. 계속 오면서

133) 하자, 못한다

134) 자메시리 : 자면서

135) 쟁겨 주니까.

136) 쓰레질. 청소

137) 어서 : 어디서

138) 친기가 : 親忌(부모의 제사)가

139) 기고가 : 忌故(제사)가

140) 돌아서 : 들어서

141) 친지에 : 친기(親忌)에

142) 그러고매시리 : 그러면서

143) 생를 커서 : (버드나무를) 생울처럼 깎아서

144) 의나라 : 진(晉)나라를 잘못 말함.

145) 무지장군 : 위무자(魏武子)의 아들 위과(魏顆)를 잘못 말함

146) 줄래 : 줄곤

147) 수욕정이풍불지 : 樹欲靜而風不止

148) 자원육이친불대 : 자육양이친부대(子欲養而親不待)를 잘못 말한 것임.

149) 왕이불래는 연야 : 往而不來는 年也

150) 풍수지탄 : 風樹之嘆

151) 팔·다리가 잘려 나가는 아픔이라는 뜻인 듯

152) 우이수족 : 위수족(爲手足:수족과 같다는 뜻)

153) 오작은 서리목에 거상 : 미상

154) 굶병이나 : 굶뵙이나

155) 곤명 금약 금시: 곤명금야금시(坤命今夜今時)

156) 동태정 : 통티경(經). 동티 난 데 읽는 경문

157) 소두방울 : 술뚜껑

158) 성조대왕 : 정조대왕을 말하는 듯

159) 으술푸시 : 어렵פות이

160) 배갓티서 : 바깥에서

161) 관서들

162) 방방곡지 : 방방곡곡에

163) 달래 : 달리

164) 두두룩히 : 두둑히

165) 내상 : 內相(아내를 말함)

166) 토사광란 : 토사곽란(吐瀉癘亂) - 토하며 설사하고 배가 아픈 병

167) 대답합니까 : 대단합니까?

168) 글저서 : 글 지어서. 답안을 작성해서

169) 후하덜한데 : 수하(手下)들에게

170) 내빌엇거든 : 내버렸거든

171) 월사 : 月沙. 조선조 선조 때의 문신 이정구(李廷龜, 1564~1635)의 호

172) 대야 : 써서 내놓아야

173) 우터켜? : 어떻게 해?

174) 부사어충 : 父死於忠

175) 자사어효 : 子死於孝

176) 아버니가 : 아버지가

177) 쥐를 알구서 : 쥐를 아들로 알고

178) 느무 : 놈의(대상을 낮추어 부를 때 쓰는 말)

179) 동정추월야 : 洞庭秋月夜

180) 호삼세야 : 포삼세아(抱三歲兒)

181) 별대비부인 : 別大妃夫人

182) 이느무 게 : 이놈의 게. 이놈의 것이

183) 도섭 : 둔갑

184) 시 향아리가 : 세 향아리가

185) 자서 : 자서, 잡수셔.

186) 통신하는 : 通神하는

187) 자다 다 같이 얘기하구 : 잠자며 신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

188) 비결을 : 토정비결을 말함

189) 맹길어 : 만들어

190) 비문 : 秘文

191) 피어서 : 한지(韓紙)같은 것이 부풀어 올라서

192) 진군이 : 비문(秘文)이? 진문(眞文)이?

193) 남구 밑이 : 나무 밑에

194) 성제분 : 정엄과 정작(鄭碯, 1533 ~ 1603) 형제분이라는 말.

195) 정북창 : 조선조 명종때의 학자. 정엄(鄭璣, 1506~1549). 본관은 온양. 호가 북창(北窓)임.

196) 헐가 속에서 : 폐가(廢家) 속에서

197) 가무개 : 까마귀

198) 폐가

199) 포도 : 浦盜

200) 생살권 : 生殺權(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

201) 지비가 : 제비가

202) 메기논디 : (새끼들을) 먹이는데

203) 꼬네다 : 꼬집어 내다가

204) 피불용 골불용 육불식 : 皮不用 骨不用 肉不食

205) 속출 : 速出

206) 증 : 정. 정녕

207) 금방내 : 이내. 금방

208) 성제분이 : (정엄. 정작)형제분이

209) 보옥 : 고옥(古玉:정작의 호)

210) 잡사작 : 잡사작(雜砂作). 얼룩돌작

211) 가운 : 家運

212) 내가 : 그 사람이

213) 지름 : 기름

214) 제우 : 겨우

215) 집어 쳐는네 : 집어 쳐 넣네

216) 가마시라 : “가만히 있으라”고.

217) 닭구 : 자꾸

218) 제 : 죄. 모조리

219) 모지란히 : 가지런히

220) 모자니 : 가지런하게

221) 깔구리 : 갈퀴

222) 하는디 : 거기서 고기를 기르는데

223) 괴기 : 물고기

224) 뱀장어 : 뱀장어

225) 미뜰어져 : 밀뜨러져서

226) 광이 : 광에서, 장광에서

227) 백포장 : 흰 천막을

228) 강다리 : 조기의 일종

229) 요두방만해서 : 미상

230) 갈라지 : 갈라져서

231) 망개지 : 4월에는 강다리 등이 갯가로 들어오므로 당(當)개, 5월에는 모두 사라져 버리므로 망(亡)개 라는 뜻

232) 산별 : 산비탈

233) 보름끼머는 : 보름계면

234) 꼬다리 : 꼬투리

235) 그러면 : 줄다리기 끝내고 나면

236) 불사르구 : 줄다리기에 사용한 줄을 불사른다는 말